

2015년 2월 고용동향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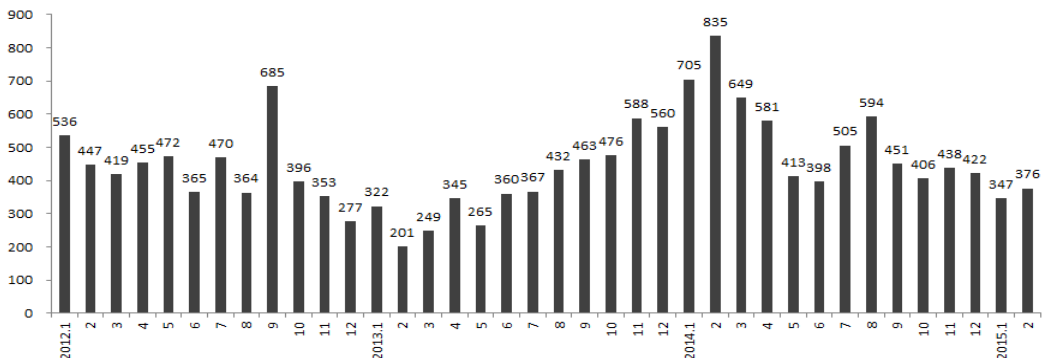
정성미(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복순(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재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1 2015년 2월 고용동향

- ◎ 취업자 수 : 2014년 2월 대비 376천 명 증가
 -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2월 376천 명 증가
 - 여성의 증가폭(232천 명)이 남성의 증가폭(144천 명)을 크게 상회(그림 2 참조)
 - 2014년 하반기 이후 남성 취업자 증가폭 둔화추세 지속

[그림 1]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2012	2013	2014	2013. 2	2014. 2	2015. 2
15 세 이 상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41,582 (1.3)	42,096 (1.2)	42,513 (1.0)	41,926 (1.3)	42,343 (1.0)	42,827 (1.1)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25,501 (1.6)	25,873 (1.5)	26,536 (2.6)	24,973 (0.6)	25,997 (4.1)	26,398 (1.5)
	취업자 (증가율)	24,681 (1.8)	25,066 (1.6)	25,599 (2.1)	23,984 (0.8)	24,819 (3.5)	25,195 (1.5)
	(증가수)	(436)	(386)	(533)	(201)	(835)	(376)
	(남성)	(234)	(186)	(266)	(47)	(453)	(144)
	(여성)	(203)	(200)	(267)	(154)	(382)	(232)
	참가율 (남성)	61.3 (73.3)	61.5 (73.2)	62.4 (74.0)	59.6 (71.6)	61.4 (73.3)	61.6 (73.1)
	(여성)	(49.9)	(50.2)	(51.3)	(48.1)	(50.0)	(50.6)
	고용률 (남성)	59.4 (70.8)	59.5 (70.8)	60.2 (71.3)	57.2 (68.6)	58.6 (70.1)	58.8 (70.0)
	(여성)	(48.4)	(48.8)	(49.5)	(46.3)	(47.6)	(48.2)
	실업자	820	807	937	990	1,178	1,203
	실업률 (남성)	3.2 (3.4)	3.1 (3.3)	3.5 (3.6)	4.0 (4.2)	4.5 (4.3)	4.6 (4.4)
	(여성)	(3.0)	(2.9)	(3.5)	(3.7)	(4.8)	(4.8)
	비경황 (증가율)	16,081 (0.8)	16,223 (0.9)	15,977 (-1.5)	16,953 (2.5)	16,346 (-3.6)	16,429 (0.5)
15 ~ 64 세	참가율 (남성)	66.4 (77.6)	66.6 (77.6)	67.8 (78.6)	65.2 (76.3)	67.2 (78.2)	67.8 (78.4)
	(여성)	(55.2)	(55.6)	(57.0)	(54.0)	(56.3)	(57.1)
	고용률 (남성)	64.2 (74.9)	64.4 (74.9)	65.3 (75.7)	62.7 (73.2)	64.4 (74.9)	64.9 (75.0)
	(여성)	(53.5)	(53.9)	(54.9)	(52.2)	(53.8)	(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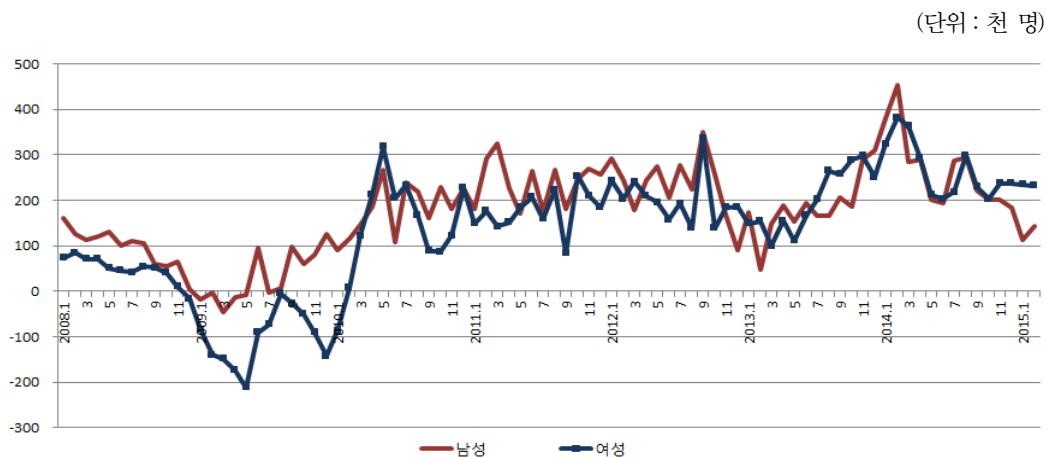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고용률 : 2014년 2월 대비 0.2%p 상승

- 15~64세 고용률은 0.5%p 상승해 64.9%를 기록
- 여성 취업자 증가 영향으로 15~64세 여성 고용률은 0.8%p 상승, 반면 남성은 0.1%p 상승에 그쳐

- ◎ 고용률 증감을 전년동월대비로 볼 때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2월 고점을 기점으로 등락을 반복하며 둔화하는 추이를 지속

[그림 2] 성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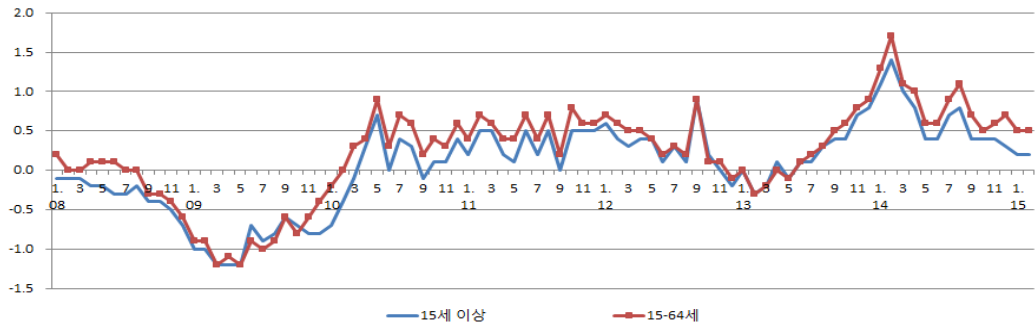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실업자 수 및 실업률 : 2014년 2월 대비 9만 5천 명 증가, 실업률도 0.1%p 상승
- ◎ 비경제활동인구 : 2014년 2월 대비 8만 3천 명 증가(증가율 0.5%p)
 - 2013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뒤집고 (+)증가, 기저효과 반영
- ◎ 이와 같은 취업자 변동은 민간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그림 6 참조)
 - 공공부문 취업자 수 2월 71천 명 감소, 민간부문 취업자 수 2월 448천 명 증가

[그림 3]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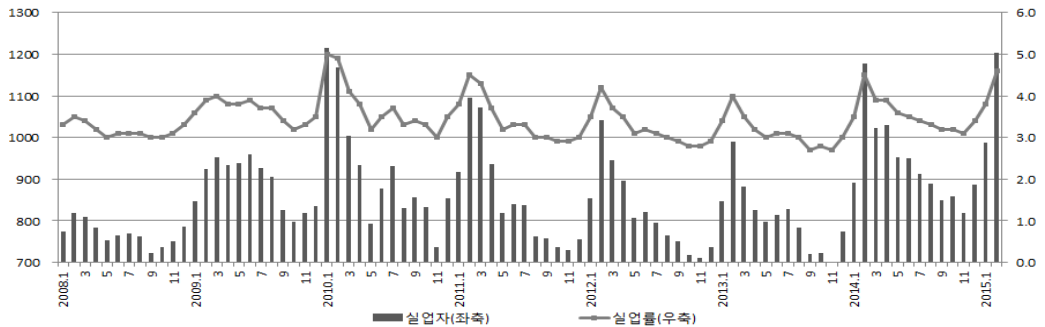
(단위: %p)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4] 실업자,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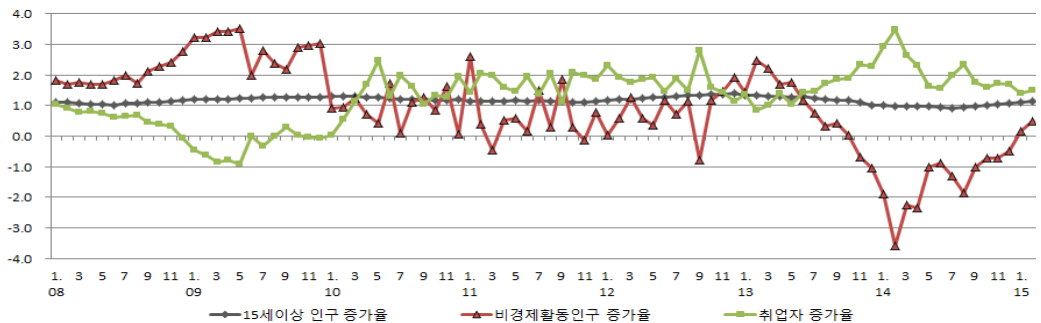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5]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 취업자 증가율,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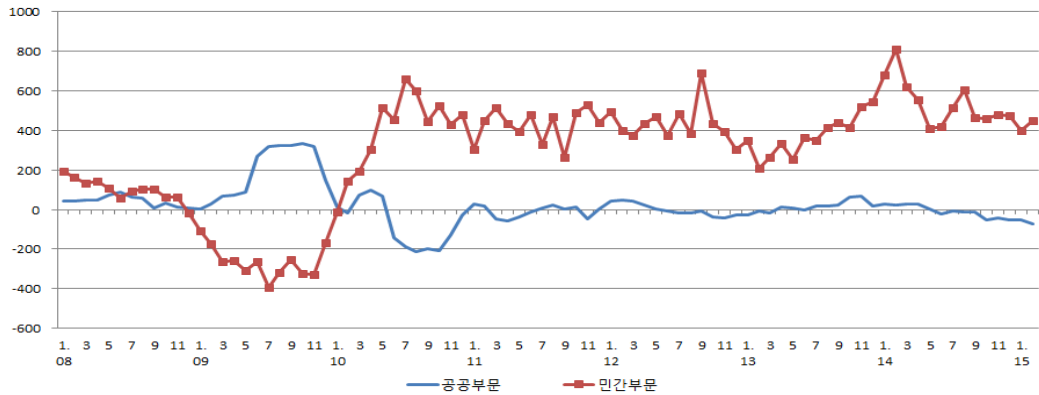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6] 부문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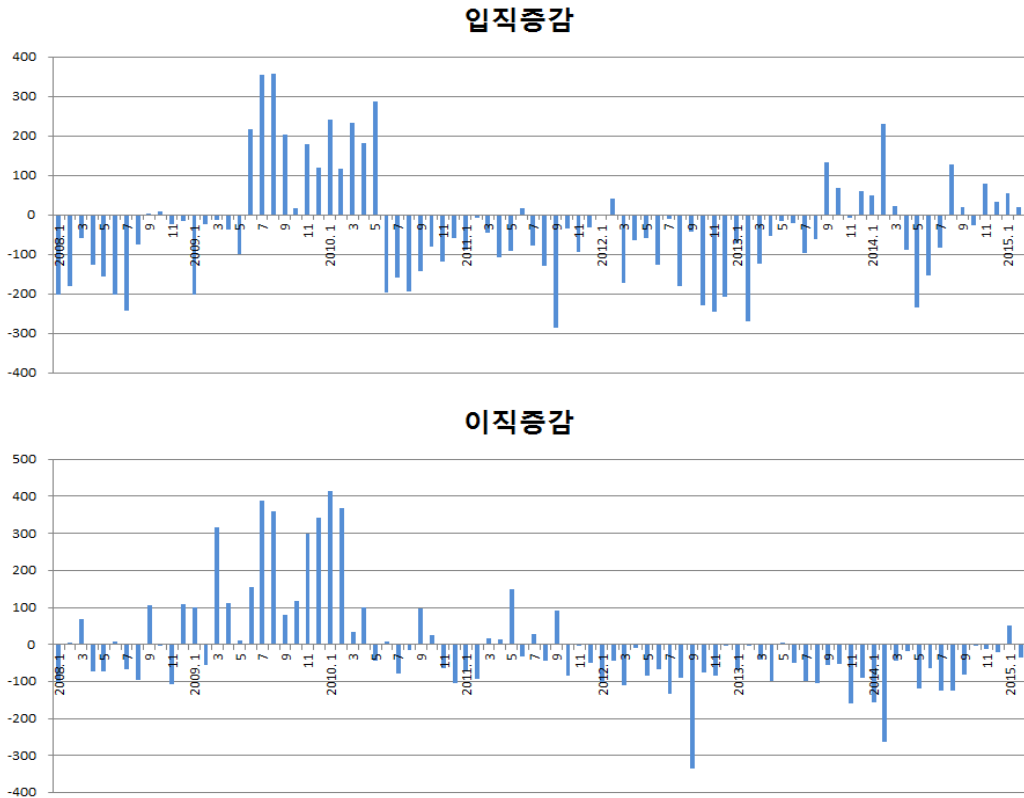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입직과 이직 흐름을 분석해 보면, 2014년 하반기 이후 상승 추이를 유지해 옴. 2월은 다소 주춤한 증가를 했지만 여전히 증가 중에 있음
 - 입직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규모는 둔화하고 있음(11월 80천 명 ↑ → 12월 35천 명 ↑ → 2015년 1월 54천 명 ↑ → 2015년 2월 20천 명 ↑)
 - 특히 상용직과 일용직 중심으로 입직이 증가
 - 이직자 수는 2015년 1월 증가로 반등했었으나 2월 다시 36천 명 감소
 - 개인적 사유로 인한 이직은 여전히 감소하는 가운데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3천 명 ↑), 작업여건의 불만족(1천 명 ↑) 등 비자발적 이직이나 노동시장 불만족 사유로의 이직은 여전히 증가 추세를 지속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취업월과 이직월 정보를 제공하므로 이를 이용해 계산
 - 입직자 수는 3개월 미만 근속한 사람의 수, 이직자 수는 3개월 미만 이직자 수입

[그림 7] 입·이직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주: 입직은 임금근로자 중의 근속기간 3개월 미만자 수, 이직은 이직한 지 3개월 미만인 미취업자 수이며, 전년동월대비 증감수를 그린 것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 각 연도 2월 근속기간별 임금근로자 수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

(단위: 천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 증감	2012 증감	2013 증감	2014 증감	2015 증감
3개월 미만	2,442	2,483	2,216	2,445	2,465	-8	41	-268	230	20
1년 미만	3,358	3,283	3,191	3,241	3,249	18	-75	-92	50	8
1~3년 미만	3,778	3,882	4,036	4,033	4,232	151	104	155	-4	199
3년 이상	7,278	7,577	8,049	8,577	8,815	413	299	472	528	238
전 체	16,856	17,225	17,493	18,296	18,761	574	369	268	803	46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 각 연도 2월 3개월 미만 근속자의 종사상 지위(증감 및 비중)

(단위: 천 명)

	증감					비중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	2012	2013	2014	2015
상용	61	24	-79	52	13	19.1	19.7	18.6	18.9	19.3
임시	-52	-24	-89	70	-10	37.7	36.1	36.4	35.9	35.2
일용	-17	42	-100	108	17	43.2	44.2	45.0	45.2	45.5
전 체	-8	41	-268	230	2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 각 연도 2월 3개월 미만 이직자의 이직사유별 추이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

(단위: 천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4 증감	2015 증감
개인, 가족관련 이유	620	641	654	602	570	509	-32	-60
육아	32	34	35	28	40	34	12	-6
가사	41	30	23	34	24	22	-10	-3
심신장애	8	8	7	8	10	6	1	-3
정년퇴직, 연로	27	30	31	32	23	38	-10	16
작업여건(시간, 보수 등) 불만족	215	201	202	223	177	178	-46	1
직장의 휴업, 폐업	40	34	37	39	28	26	-11	-2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65	45	46	40	57	47	17	-9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525	531	499	495	407	410	-88	3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	335	258	261	290	185	188	-106	3
기타	42	46	18	21	30	54	9	24
전 체	1,949	1,857	1,814	1,812	1,550	1,514	-262	-3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2015년 2월 고용동향의 부문별 특징

1. 고령층의 고용 증가 주도 및 20대 초반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

- ◎ 2015년 2월 취업자 수 증가는 5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수 증가와 더불어 20~24세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 영향

- 2월에 20~24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51천 명 증가, 반면 25~29세는 7천 명 감소
- 5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수는 376천 명(183천 명+193천 명) 증가

〈표 5〉 연령계층별 취업자 수 증감(전년 및 전년동월대비)

(단위: 천 명)

	전년 및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감						취업자 수	생산가능인구 증감		
	2012	2013	2014	2013. 2	2014. 2	2015. 2		2015. 2	2013. 2	2014. 2
전 체	437	385	533	201	835	376	25,195	557	418	484
15~29세	-36	-50	77	-141	148	30	3,899	10	-22	-39
15~19세	4	-7	20	18	22	-14	267	-19	-67	-78
20대	-40	-43	56	-159	126	44	3,631	29	45	39
20~24세	89	29	81	-11	133	51	1,385	137	109	53
25~29세	-129	-72	-25	-148	-7	-7	2,246	-109	-64	-14
30대	-30	-21	-21	-17	-6	18	5,680	-63	-113	-92
30~34세	79	58	12	103	6	4	2,875	66	-19	-99
35~39세	-110	-78	-34	-120	-12	15	2,805	-129	-95	7
40대	11	22	38	13	109	-48	6,582	39	-26	-10
50대	270	253	239	176	357	183	5,859	273	220	199
60세 이상	222	181	200	170	228	193	3,175	298	358	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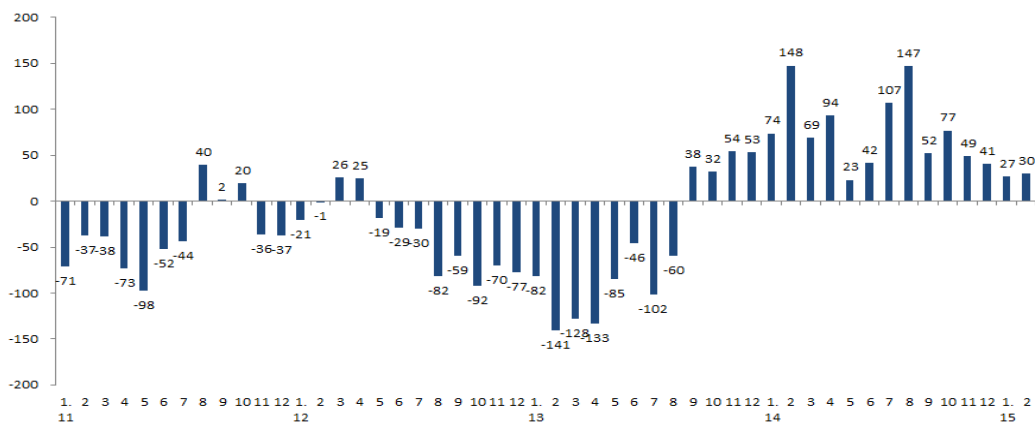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전년동월대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

- 청년층 취업자 증가는 20~24세의 증가 영향이 반영(인구 증가의 영향)
- 청년층 취업자 증가에 따라 15~29세 청년층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청년 고용률은 남성 20~24세(1.8%p ↑)와 25~29세(0.5%p ↑)의 증가 영향이 반영된 것이고, 오히려 여성 25~29세(0.4%p ↓) 고용률은 감소

[그림 8] 전년동월대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여성 30대 초반 중심 취업자 증가

- 30대는 여성(37천 명 ↑)은 증가하였으나(특히 30~34세(33천 명 ↑)의 영향이 컸음), 남성(19천 명 ↓)은 감소(30~34세(29천 명 ↓)에서 크게 감소)

◎ 40대 취업자 감소는 남성에 의해 주도

- 2014년 10월 이후 남성취업자는 지속적 감소세(10월 -3천 명, 11월 -10천 명, 12월 -22천 명, 1월 -31천 명, 2월 -55천 명)인 반면, 여성취업자는 증가세를 유지(10월 3천 명, 11월 19천 명, 12월 25천 명, 1월 4천 명, 2월 8천 명)

◎ 50세 이상 취업자 증가 추세 지속

- 50대는 남성(94천 명 ↑)과 여성(89천 명 ↑)이 비슷한 수준에서 증가하였고, 60세 이상은 남성(92천 명 ↑)보다 여성(101천 명 ↑)이 크게 증가

◎ 성별 고용률 남성 0.1%p 감소, 여성 0.6%p 상승

- 여성취업자 증가의 영향으로 여성 고용률은 상승한 반면, 남성 고용률은 감소
- 남성은 40대(1.1%p ↓)와 15~19세(0.7%p ↓), 60세 이상(0.1%p ↓)에서 고용률이 감

소한 반면, 20~24세(1.8%p ↑) 이외에도 20대 후반, 30대 모두에서 고용률이 소폭 증가

- 반면 여성은 25~29세(0.4%p ↓) 외 다른 모든 연령에서 고용률이 증가했으며, 특히 30~34세에서 3.4%p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임

〈표 6〉 연령계층별 고용률 추이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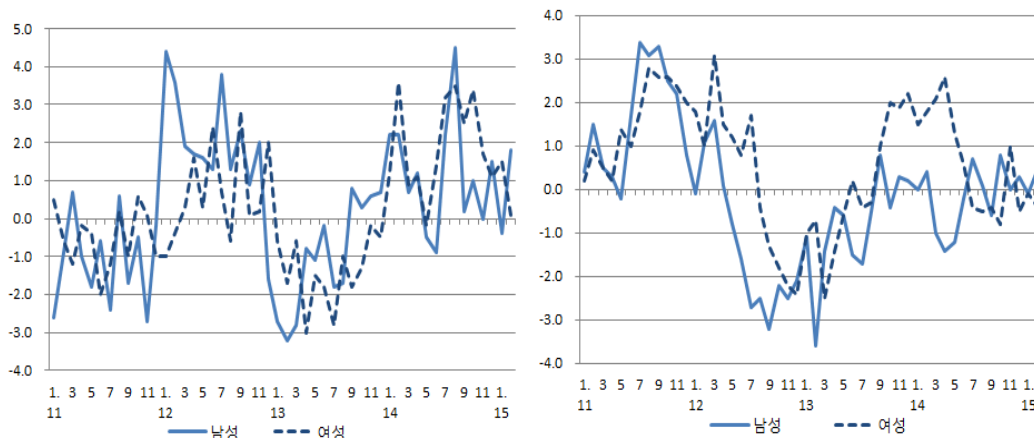
		2012	2013	2014	2013. 2	2014. 2	2015. 2	증감 (2014. 2→ 2015. 2)
전 체	전 체	59.4	59.5	60.2	57.2	58.6	58.8	0.2
	15~29세	40.4	39.7	40.7	39.0	40.6	41.1	0.5
	15~19세	7.0	6.9	7.7	7.9	8.7	8.5	-0.2
	20대	58.1	56.8	57.4	55.3	56.9	57.2	0.3
	20~24세	44.5	43.2	44.8	41.3	44.3	45.1	0.8
	25~29세	69.2	68.8	69.1	67.3	68.4	68.5	0.1
	30대	72.7	73.2	73.9	71.9	72.9	74.0	1.1
	30~34세	72.2	72.9	74.1	72.2	72.7	74.6	1.9
	35~39세	73.2	73.5	73.7	71.7	73.2	73.4	0.2
	40대	78.3	78.4	79.0	76.9	78.4	78.0	-0.4
	50대	72.2	73.1	74.2	70.2	72.8	73.3	0.5
60세 이상	37.5	38.4	39.0	32.6	33.9	34.4	0.5	
남성	전 체	70.8	70.8	71.3	68.6	70.1	70.0	-0.1
	15~29세	38.7	38.1	38.9	37.3	38.8	39.6	0.8
	15~19세	5.7	5.9	6.8	6.1	7.8	7.1	-0.7
	20대	57.3	55.7	55.8	54.6	55.3	56.3	1.0
	20~24세	39.1	38.2	39.3	37.2	39.4	41.2	1.8
	25~29세	70.4	69.6	69.4	67.9	68.3	68.8	0.5
	30대	90.3	90.2	90.9	89.1	90.5	90.8	0.3
	30~34세	89.0	88.4	89.9	87.4	89.0	89.4	0.4
	35~39세	91.7	92.1	92.1	90.9	92.1	92.3	0.2
	40대	91.7	92.0	92.7	90.9	92.4	91.3	-1.1
	50대	86.3	86.7	87.5	83.7	86.1	86.1	0.0
60세 이상	49.9	51.0	51.4	45.2	46.9	46.8	-0.1	
여성	전 체	48.4	48.8	49.5	46.3	47.6	48.2	0.6
	15~29세	42.1	41.3	42.5	40.6	42.4	42.5	0.1
	15~19세	8.3	7.9	8.6	9.8	9.7	10.0	0.3
	20대	58.8	57.8	59.0	55.9	58.4	58.1	-0.3
	20~24세	48.9	47.5	49.5	44.8	48.4	48.5	0.1
	25~29세	68.0	68.0	68.8	66.7	68.5	68.1	-0.4
	30대	54.5	55.5	56.3	54.2	54.7	56.6	1.9
	30~34세	54.8	56.7	57.7	56.4	55.7	59.1	3.4
	35~39세	54.1	54.4	54.9	52.0	53.8	54.0	0.2
	40대	64.6	64.6	65.1	62.6	64.2	64.4	0.2
	50대	58.1	59.5	60.9	56.8	59.5	60.4	0.9
60세 이상	27.9	28.6	29.3	22.9	23.8	24.7	0.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2013년 하반기 이후 고용률 하락 흐름에서 벗어난 20대는 최근 남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여성 증가세는 주춤
 - [그림 9]를 보면, 2013년 하반기 이후의 청년층 고용률 증가를 이끈 25~29세 여성은 2014년 상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동시에 20대 초반 여성의 증가 추세도 둔화
 - 반면 남성은 20대 전반에서 고용률 둔화가 멈추고 증가로 반전

[그림 9]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감 추이 : 20~24세(좌측), 25~29세(우측)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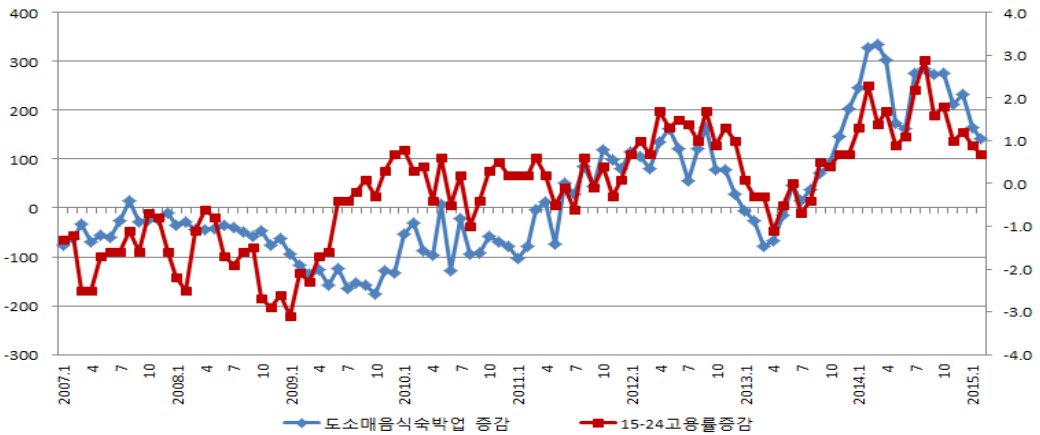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국제금융위기를 거치며 15~24세의 고용변화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변화와 깊은 연관을 보임
 - 2011년 이후 15~24세 취업자가 아르바이트 등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중심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산업의 흐름과 유사하게 변화하고 있음
 - 즉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기에 15~24세 고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 이 두 산업에 속한 15~24세는 주로 서비스 판매업 등 저임금 직업군에 포진

[그림 10] 전년동월대비 15~24세 고용률 증감 및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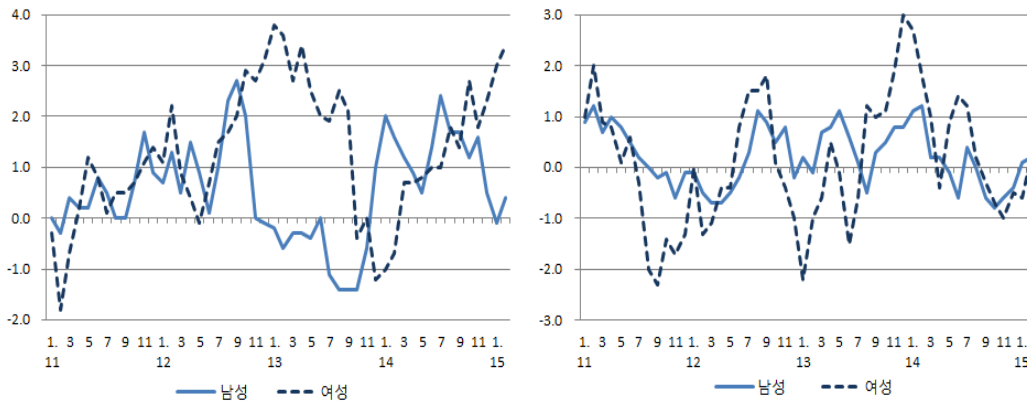
(단위: 천 명, %p)



- ◎ 30대 초반 연령층을 추세로 보면 여성 중심으로 고용률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는 모습
 - [그림 11]에서 고용률 증감 추이를 보면, 여성 30대 초반에서 2014년 초를 기점으로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감
 - 인구 감소에도 취업자 증가가 유지되는 영향으로 고용률이 증가한 반면, 30대 후반은 2014년 하반기 이후 감소를 지속
 - 특히 여성 30~34세는 금융위기를 거친 2009년 이후 빠르게 고용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12 참조)
 - ※ 25~29세 여성의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해 현재는 남성의 고용률과 큰 차이가 없어진 흐름과 마찬가지로, 30~34세의 여성 고용률도 만혼이나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 증가의 영향으로 취업이 활발해진 노동공급효과로 해석 가능
 - ※ 30~34세 여성의 취업자 가운데 무배우자(미혼·이혼·사별)의 비중은 2005년 28.7%에서 2014년 41.7%까지 급증

[그림 11]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감 추이 : 30~34세(좌측), 35~39세(우측)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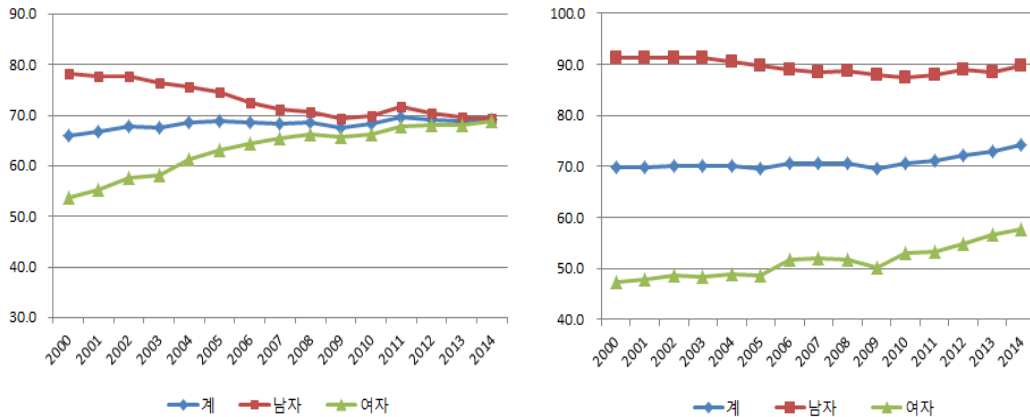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2] 연령별, 성별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고용률 장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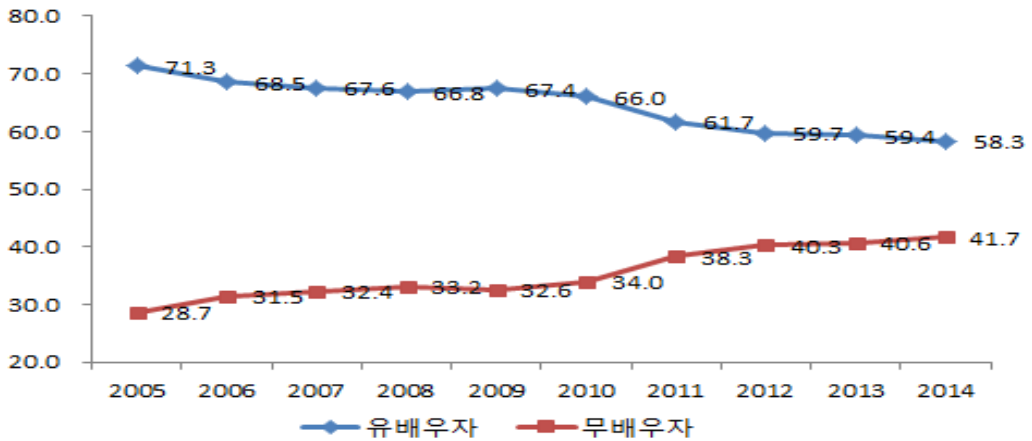
<25~29세>

<30~34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참고] 여성 30~34세 취업자 중 유배우자/ 무배우자 비중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상용직·임시직 중심의 취업자 수 증가

◎ 취업자 수 증가는 상용직 중심의 임금근로자 증가가 주요 요인

-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383천 명 증가 및 임시직 63천 명 증가, 일용직 20천 명 증가에 따라 465천 명 증가
-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56천 명 ↑)는 증가하였으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114천 명 ↓)와 무급가족종사자(30천 명 ↓) 감소에 따라 89천 명 감소

〈표 7〉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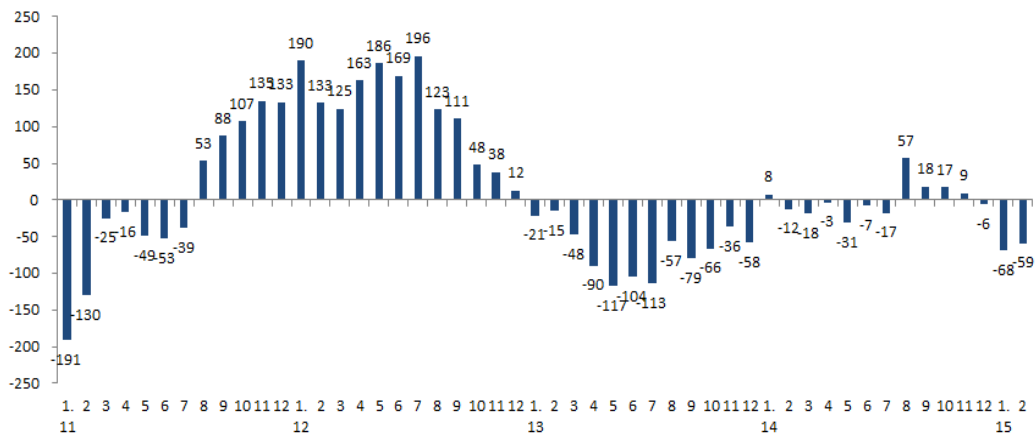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2012	2013	2014	2013, 2	2014, 2	2015, 2
전 체	436	386	533	201	835	376
임금근로자	315	483	548	267	803	465
상용직	436	615	443	529	635	383
임시직	-2	-96	139	-151	99	63
일용직	-120	-37	-35	-110	70	20
비임금근로자	121	-97	-15	-66	32	-89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43	-39	40	-44	-13	56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81	-28	-39	29	1	-114
무급가족종사자	-3	-30	-16	-51	44	-3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13] 전년동월대비 자영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전년동월대비로 보면 임금근로자의 증가폭은 2014년 2월 803천 명 증가로 정점을 찍고 상용직 급감으로 하반기까지 빠르게 둔화되다 7월 이후 40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 유지

- 상용직은 2013년 3월부터 60만 명대 증가로 증가폭이 확대된 기저효과 영향으로 2014년 이후 증가폭이 가파르게 둔화되었지만, 8월 이후 증가규모가 30만 명대 초반의 저점을 기록한 후 최근에 올수록 증가규모가 40만 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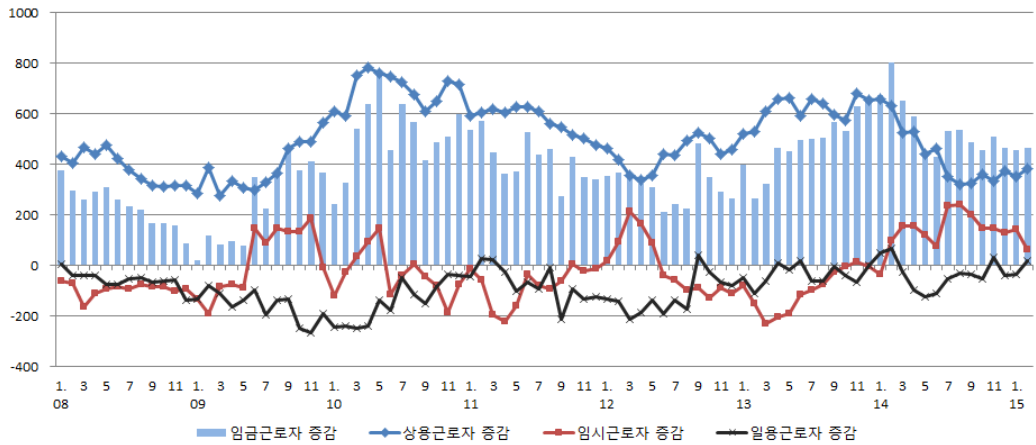
- 임시근로자는 2014년 2월 (+)로 전환된 후 등락을 반복하며 증가 추세를 이어갔지만, 8월 242천 명 ↑로 고점을 기록한 후 가파르게 증가 추세 둔화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증가해온 임시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려워 앞으로 더욱 둔화되거나 감소될 가능성 시사

※ 2012년 상반기 임시직이 급증한 주요 산업은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임

[그림 14]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 전년동월대비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 연령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증가는 50대(182천 명 ↑)와 60세 이상(91천 명 ↑)이 주도
 -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30대에서 상용직 증가 추세가 이어짐과 동시에 40대에서 상용직 5개월 연속 50천 명 증가를 유지하면서 전체 상용직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섬(그림 15 참조)

- ◎ 전년동월대비 임시직 증가는 15~24세(72천 명 ↑)가 주도하였고, 60세 이상(44천 명 ↑)과 25~29세(17천 명 ↑), 50대(15천 명 ↑) 증가
 - 핵심연령층(30~40대)의 임시직은 감소 추세를 이어감

〈표 8〉 종사상 지위별, 연령별 취업자 수 전년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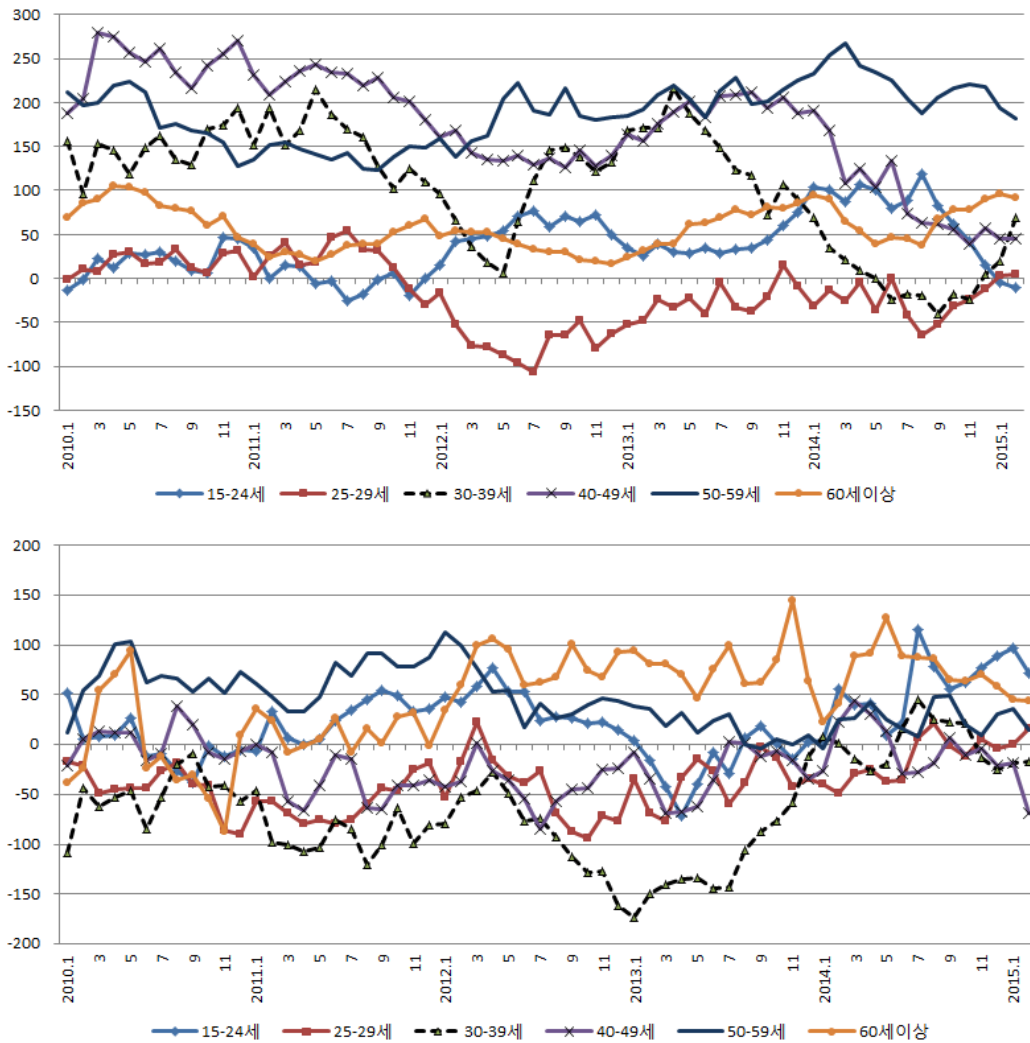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증감			전년동월대비 증감		
		2012	2013	2014	2013. 2	2014. 2	2015. 2
15~24세	상용직	56	39	82	26	101	-10
	임시직	39	-16	54	-16	55	72
	일용직	2	-1	-24	-6	8	-30
	고용원 있는 자영자	0	0	2	-1	1	4
	고용원 없는 자영자	1	-7	-5	3	-6	-11
	무급가족종사자	-5	7	-7	2	-4	12
25~29세	상용직	-69	-26	-28	-48	-13	5
	임시직	-47	-37	-16	-69	-49	17
	일용직	-10	3	5	5	4	-7
	고용원 있는 자영자	1	-11	-2	-22	-3	-1
	고용원 없는 자영자	-6	0	11	-11	36	-19
	무급가족종사자	2	-1	7	-3	18	-2
30~39세	상용직	90	145	-1	171	35	69
	임시직	-86	-113	4	-150	2	-17
	일용직	-38	-25	-14	-43	-14	5
	고용원 있는 자영자	-10	-12	19	-4	5	-29
	고용원 없는 자영자	20	-8	-21	21	-26	-1
	무급가족종사자	-7	-8	-7	-12	-8	-10
40~49세	상용직	141	190	99	156	169	46
	임시직	-39	-28	-1	-34	23	-69
	일용직	-64	-40	-5	-65	4	1
	고용원 있는 자영자	5	-29	-2	-19	-40	49
	고용원 없는 자영자	-21	-53	-31	-13	-40	-40
	무급가족종사자	-11	-18	-21	-13	-8	-34
50~59세	상용직	182	206	226	193	254	182
	임시직	54	17	25	37	26	15
	일용직	-15	23	-12	-2	40	13
	고용원 있는 자영자	22	10	16	-17	38	7
	고용원 없는 자영자	36	-5	-23	1	-32	-26
	무급가족종사자	-9	2	8	-35	31	-8
60세 이상	상용직	37	61	66	31	90	91
	임시직	77	81	74	81	42	44
	일용직	5	3	16	1	27	38
	고용원 있는 자영자	26	4	8	19	-14	26
	고용원 없는 자영자	51	44	31	28	69	-19
	무급가족종사자	26	-11	5	10	15	1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5] 상용근로자(위)와 임시근로자(아래) 연령별 전년동월대비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 전년동월대비 업종별 상용직 증감을 보면, 제조업(191천 명 ↑)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6천 명 ↑)의 증가가 크게 나타남
 - 상용직 중 공공행정서비스(50천 명 ↓), 금융·보험업(41천 명 ↓), 운수업(39천 명 ↓)의 감소가 두드러짐

- 임시직 증가는 여가관련 서비스업(49천 명 ↑), 음식·숙박업(48천 명 ↑)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건설업, 운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2만 명씩 증가. 반면 제조업은 32천 명 감소하였고,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금융·보험업에서 25천 명이 감소
- 일부 산업에 집중되던 임시직 증가현상이 다소 완화되는 경향

〈표 9〉 2015년 2월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업종별 증감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증감	상용직 수	임금근로 자 중 상용직 비중	전년동월대비 임시직 증감	전년동월대비 일용직 증감
제조업	191	3,217	81.8	-32	8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4	84	93.1	-1	-2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	66	81.7	3	1
건설업	20	569	43.5	21	1
도소매업	33	1,214	52.1	3	12
운수업	-39	564	74.4	23	5
음식·숙박업	44	292	21.3	48	15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2	611	89.4	16	2
금융·보험업	-41	484	64.0	-25	1
부동산업 및 임대업	0	204	56.1	-9	-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	776	88.9	0	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5	763	68.3	-26	19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50	698	83.3	-17	-5
교육서비스업	37	996	70.0	-3	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6	1,264	79.6	24	-1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	108	40.1	49	-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4	388	50.5	24	-16
기타	0	56	26.0	-36	-2
전 체	383	12,353	65.8	63	2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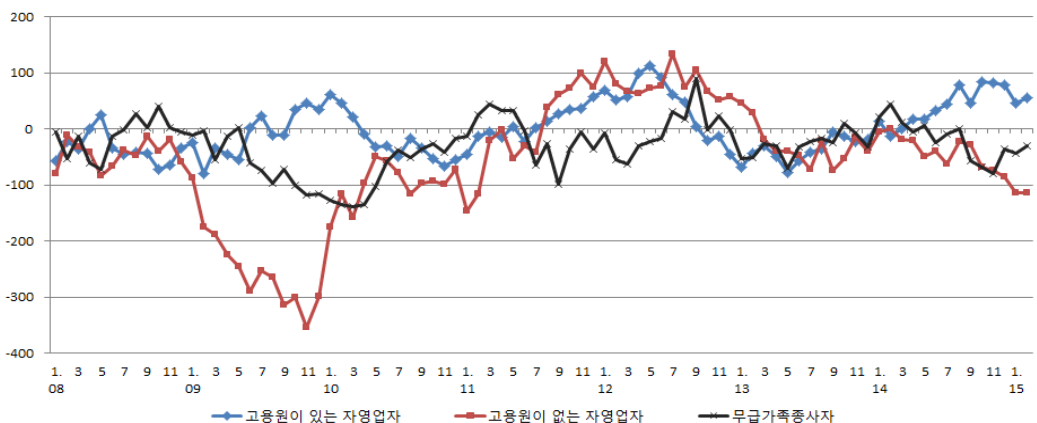
3. 비임금근로자 추이

◎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감소세 지속

-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는 2013년 상반기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400만 명 수준에서 등락하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450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위기 이후 큰 폭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후 다소 회복하는 듯하였으나 2013년 하반기 이후 감소세를 보임
-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의 경우 2013년 하락세를 벗어나 2014년 이후 지속적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 증가 추세가 둔화
 -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장기적으로 볼 때 1999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이며 강한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외환위기와 함께 크게 감소하였다가 이후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는데, 2005년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무급가족종사자 수는 단기적인 일부 등락을 제외하면 지속적이며 강한 감소 추세

[그림 16] 최근 전년동월대비 자영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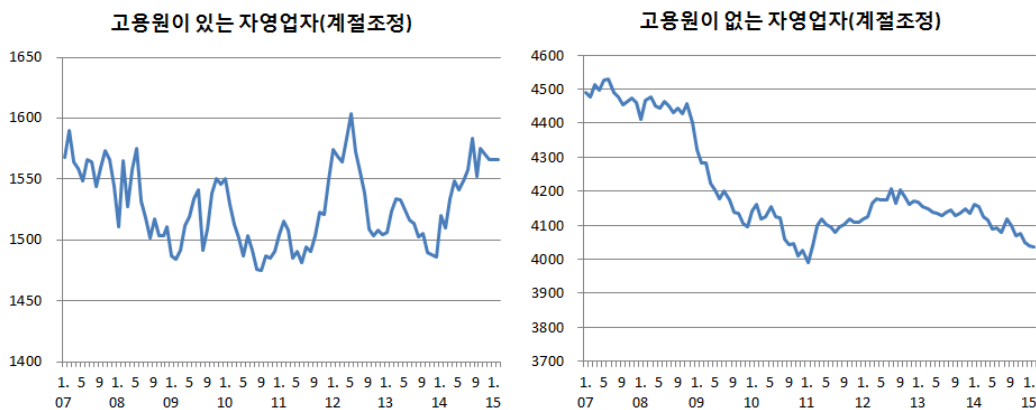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 ◎ 계절조정 수치로 최근 추이를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증감폭이 크지 않으나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소폭의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당분간 감소 추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

[그림 17] 고용원 여부별 자영업자 수 추이(계절조정)

(단위: 천 명)



자료 : 통계청, KOSIS.

- ◎ 2015년 2월의 전년동월대비 자영업자의 업종별 증감을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교육서비스업과 건설업(각 17천 명 ↑), 음식·숙박업(14천 명 ↑)에서 증가 -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농림어업(70천 명 ↓), 음식·숙박업(33천 명 ↓), 교육서비스업(25천 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20천 명 ↓) 등에서 주로 감소하였고, 이는 추세적 경향임

〈표 10〉 2015년 2월 자영업자의 업종별 증감

(단위: 천 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영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영업자 수
농업, 임업 및 어업	11	48	-70	660
제조업	8	207	-11	192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	3	-1	2
건설업	17	171	3	228
도소매업	0	349	5	869
운수업	1	33	8	609
음식·숙박업	14	308	-33	248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	20	0	43
금융·보험업	-3	5	0	21
부동산업 및 임대업	2	31	17	11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	69	10	8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0	28	7	37
교육서비스업	17	88	-25	26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9	88	2	4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	26	-9	9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3	74	-20	373
기타	1	1	0	15
전 체	56	1,549	-115	3,85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4.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 ◎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던 비경제활동인구가 2015년 들어 두 달 연속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주된 이유는 쉬었음의 증가로 2014년 2월 대비 143천 명이 증가하였고, 취업준비 비경활은 여전히 증가국면에 있음
 - 그러나 정규교육기관의 통학, 가사의 이유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 규모는 크게 감소

〈표 11〉 비경활인구 활동상태별 증감

(단위: 천 명)

	2012	2013	2014	2013. 2	2014. 2	2015. 2	2015. 2 비경활 인구 수
육아	-2	1	-40	-7	-15	24	1,515
가사	123	-3	-130	177	-282	-87	6,003
정규교육기관 통학	23	103	-91	97	-22	-209	3,624
입시학원 통학	-1	-24	12	-7	-5	20	59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34	-2	-2	28	-68	47	196
취업준비	22	15	-12	37	-51	-10	341
진학준비	-31	-5	-18	-2	1	-6	242
연로	148	54	93	159	73	79	2,043
심신장애	-22	11	21	4	19	33	442
군입대 대기	3	1	9	5	7	-3	75
쉬었음	-53	-7	-92	-67	-263	143	1,727
기타	-46	-9	4	-14	0	51	162
비경활 계	128	141	-246	410	-606	82	16,429
취업준비*	-12	14	-14	65	-119	37	537
통학**	-12	77	-81	118	-95	-142	3,879

주: *취업준비는 취업준비와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의 합.

**통학은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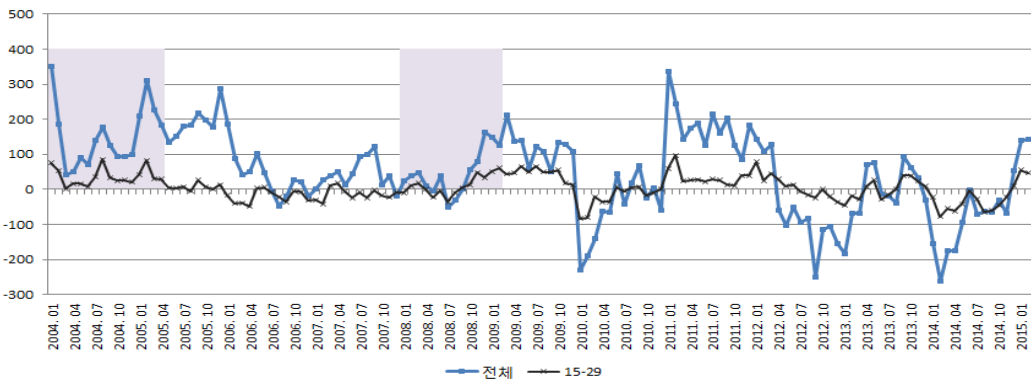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쉬었음은 최근 석 달 연속 증가

- 2014년 2월 263천 명 감소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폭이 추세적으로 줄어들며 2014년 12월 53천 명 ↑, 2015년 1월 139천 명 ↑ 2월 143천 명 ↑ 증가로 증가폭이 확대됨
- 쉬었음의 증가는 주로 60세 이상(92천 명 ↑)의 영향이며, 20대(41천 명 ↑), 40대(27천 명 ↑)의 증가에도 기인

[그림 18] 쉬었음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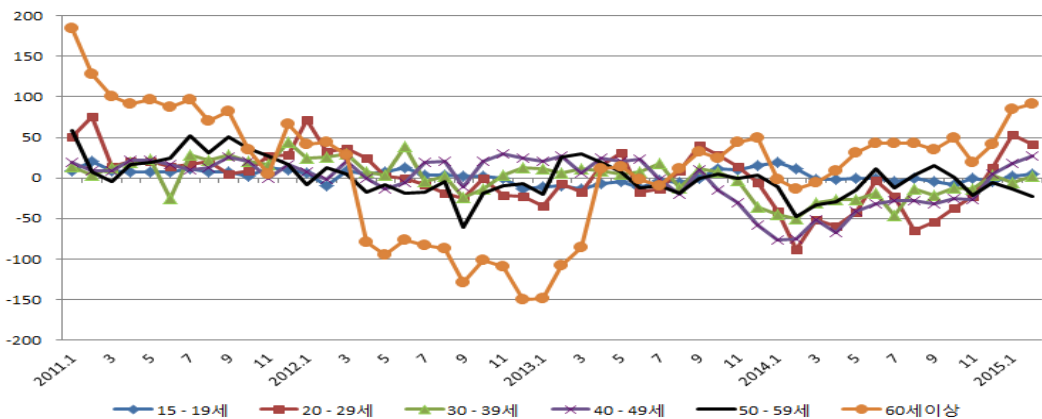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주: 음영은 경기순환 기준순환일 기준 수축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9] 쉬었음 연령별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참고〉 고용보조지표

- ◎ 2015년 2월 고용보조지표에 따르면, 실업률은 4.6%, 고용보조지표 1은 6.4%, 고용보조지표 2는 10.8%, 고용보조지표 3은 12.5%로 나타남
 - 통상 2월이 방학, 졸업 등으로 인한 취업시즌임을 감안할 때 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2015년 2월 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 1~3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여성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시도가 활발했음을 보여줌
 - 연령별로 보면, 실업률이 가장 높은 15~24세와 25~29세의 고용보조지표 1, 2, 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5~24세의 경우 고용보조지표 3이 27.2%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 보면, 실업률은 고졸 미만이 5.0%로 가장 높았고 고용보조지표 1, 2, 3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12〉 인적특성별 고용보조지표

(단위: 천 명, %)

	실업률	실업자	고용보조지표 1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고용보조지표 2	잠재경제활동인구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고용보조지표 3			
										전체	남성	여성
전체	4.6	1,203	6.4	493	10.8	1,832	39	1,793	12.5			
성별	남성	4.4	668	6.2	288	9.6	890	20	870	11.4		
	여성	4.8	534	6.7	206	12.3	943	19	923	14.0		
연령	15~24세	13.5	258	15.7	41	25.4	304	15	290	27.2		
	25~29세	9.1	226	10.4	30	18.3	278	4	274	19.4		
	30~39세	3.3	191	4.3	60	7.3	254	4	250	8.3		
	40~49세	2.5	171	4.5	129	6.7	301	9	292	8.5		
	50~59세	2.8	168	5.0	131	7.4	298	6	292	9.4		
	60세 이상	5.6	187	8.6	102	15.6	398	2	396	18.3		
학력	고졸미만	5.0	209	8.2	131	13.0	381	6	375	15.9		
	고졸	4.8	514	6.8	213	11.5	806	21	785	13.4		
	초대졸	4.9	174	6.3	51	9.9	199	2	197	11.2		
	대졸이상	3.8	307	5.1	99	8.9	446	11	435	10.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1)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자
- 2) 잠재취업가능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
- 3) 잠재구직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
- 4) 잠재경제활동인구=잠재취업가능자+잠재구직자
- 5) 확장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잠재경제활동인구
- 6) 고용보조지표1=(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 7) 고용보조지표2=(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
- 8) 고용보조지표3=(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

5. 사업체 특성에 따른 취업자 변화

- ◎ 2015년 2월 전년동월대비 고용 증가폭(376천 명 ↑) 둔화
 - 제조업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고용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폭 둔화와 농림어업 부문의 고용 감소가 주된 요인
 - 제조업 고용은 2012년 7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5년 2월 159천 명 증가함으로써 고용 증가세 지속
 - 서비스업 또한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고용 증가폭은 남성을 중심으로 크게 둔화(230천 명 ↑). 2014년 2월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612천 명 ↑)에 따른 기여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은 둔화
 - 한편 건설업의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어업의 취업자는 2014년 2월 이후 급격하게 감소

〈표 13〉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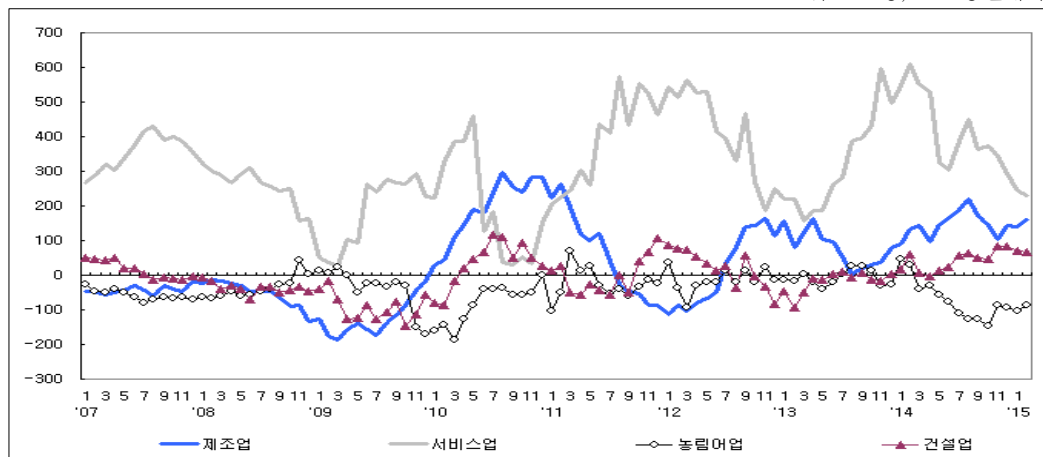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2014	2013. 2	2014. 2	2015. 2
취업자 전체	436	386	533	201	835	376
농림어업	-14	-8	-68	-15	29	-87
건설업	22	-19	42	-95	59	68
제조업	14	79	146	79	135	159
서비스업	416	318	423	222	612	230
도소매업	51	-29	132	-69	182	62
운수업	48	34	-6	17	36	-10
음식·숙박업	53	64	127	42	146	81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	-8	22	-54	31	39
금융·보험업	-4	22	-26	13	1	-6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0	57	7	93	12	36
공공행정 등	0	14	-8	-8	23	-71
교육서비스업	58	4	59	-9	99	2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8	155	139	134	110	135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	-17	1	-27	-5	30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25	26	-13	64	-29	-26
가구내 고용활동 등	13	5	-56	5	-38	-39
민간부문	436	372	541	209	812	448
공공부문	0	14	-8	-8	23	-7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20]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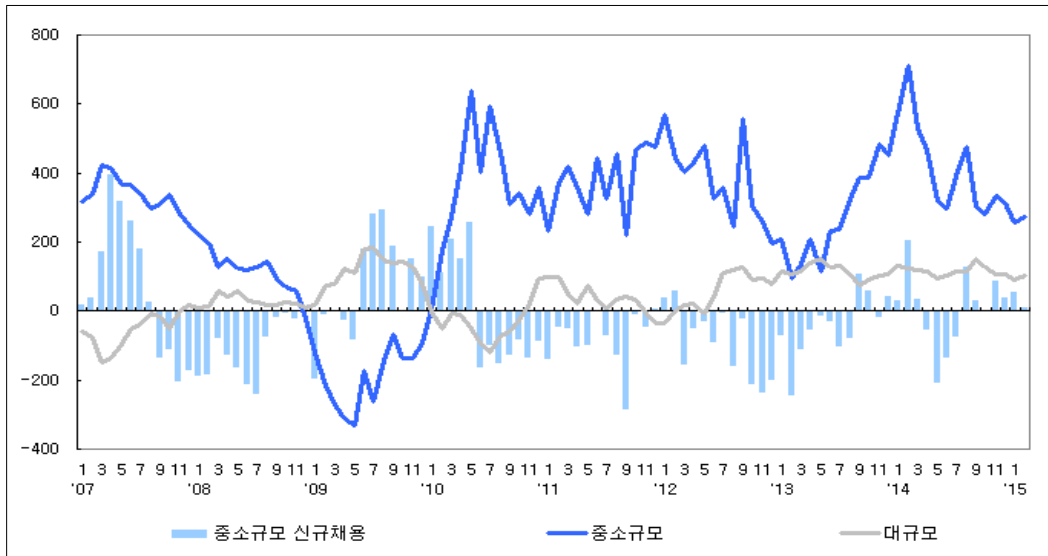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21]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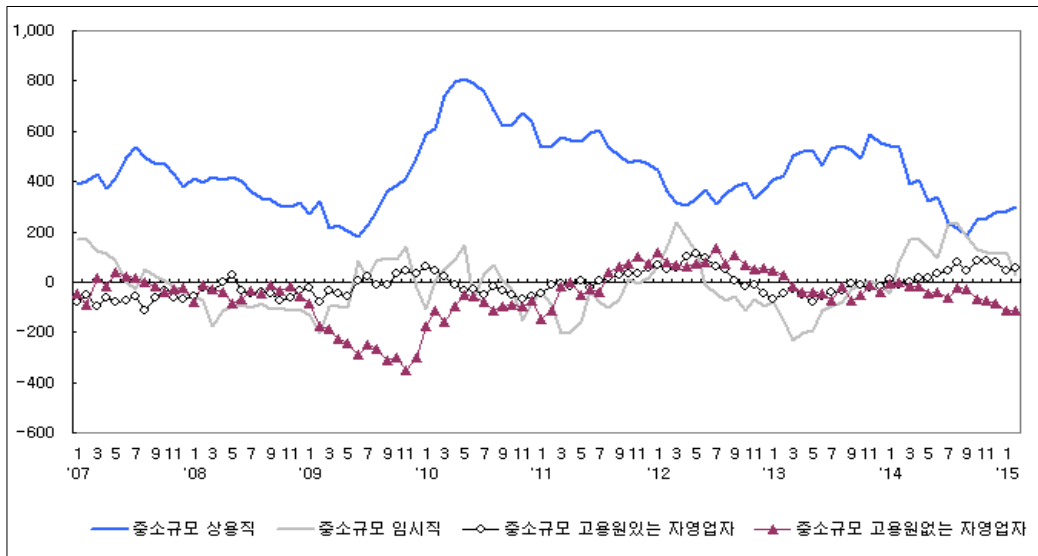
◎ 중소기업·대기업 모두 고용 증가세 지속

- 중소기업 사업체의 취업자는 2014년 2월 취업자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272천 명 증가하는 데 그침. 특히 서비스업(190천 명↑), 상용직(301천 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15천 명↓)를 중심으로 고용 증가폭이 둔화되거나 감소
 - 고용원이 없는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비중은 2015년 2월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의 16.9%(3,857천 명)로 지난달에 이어 16%대로 하락함. 고용원이 없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115천 명↓(농림어업 70천 명↓, 음식·숙박업 33천 명↓)
 - 특히 5인 미만 영세 규모 사업체(101천 명↓)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감소폭이 큼(114천 명↓). 중소기업 사업체에서 5인 미만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월 41%대로 떨어진 후 유지
 - 중소기업 상용직의 고용 증가폭 둔화가 큼. 이는 노동시장 핵심연령층이면서 10만~20만 명의 고용 증가폭을 유지해 오던 40대 연령층의 고용 감소가 주요 원인
- ※ 중소기업 40대 상용직 고용 증가폭은 2014년 7월 10만 명 미만을 기록한 이후

증가폭이 둔화되는 추세였으나 2015년 1월 8천 명 감소하는 등 2개월 연속 고용 감소

[그림 22] 중소기업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 14〉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2014	2013. 2	2014. 2	2015. 2	
취업자 전체		436	386	533	201	835	376	
중 소 규 모	소 계	381	272	416	96	712	272	
	(신규채용)	-90	-43	8	-247	209	13	
	산업 별	제조업	-41	39	79	14	80	87
		서비스업	417	256	361	196	539	190
		도소매음식	112	33	241	-22	287	145
		보건업 등	89	129	127	107	117	97
		금융·보험업	9	21	-28	21	-9	-57
		기타개인	25	24	-13	62	-32	-23
		자가활동	25	24	-13	62	-32	-23
	지위 별	건설업	18	-20	52	-99	66	73
		상용직	355	505	328	423	534	301
		40대 연령층	143	181	74	171	160	-18
		도소매업	55	64	80	15	117	40
		운수업	39	10	7	14	32	-48
		금융·보험업	7	21	-27	19	-11	-33
		임시직	22	-100	134	-151	81	28
		자영업자	124	-67	1	-15	-12	-59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43	-39	40	-44	-13	5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81	-28	-39	29	1	-115		
연령 별	20대	-19	-31	19	-151	103	32	
	40대	14	13	11	32	92	-112	
	55세 이상	368	325	366	231	455	31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대규모 사업체 상용직의 고용 증가폭 둔화는 20~30대 연령층 상용직 감소 영향이 큼(2015년 1월 20대 연령층은 15개월 만에 감소(9천 명↓) 이래 2개월 연속 감소, 30대 연령층은 5개월 연속 감소(16천 명↓))

〈표 15〉 대규모 사업체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2014	2013. 2	2014. 2	2015. 2	
취업자 전체		436	386	533	201	835	376	
대 규 모	소 계	55	114	117	105	123	104	
	신규채용	-18	5	-10	-21	21	7	
	산업별	제조업	55	41	67	65	54	72
		서비스업	-1	62	62	25	73	40
		공공행정 등	-5	1	-3	-15	26	-50
		금융	-13	1	2	-8	10	-11
		도소매음식	-8	2	18	-4	41	-2
	지위별	상용직	81	110	115	106	100	82
		20~30대	52	62	32	77	39	-21
		제조업	52	37	72	60	49	81
		출판 등	2	-2	12	-1	2	22
		공공행정 등	5	0	-2	-15	18	-48
		도소매업	-4	4	14	-2	29	-7
금융·보험업		-12	4	1	0	5	-8	
임시직	-24	4	5	-1	19	3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 직종별로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와 사무종사자의 고용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반면, 단순노무종사자의 증가세 지속(4개월째 고용 증가폭 10만 명 이상 유지)

〈표 16〉 직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2014	2013. 2	2014. 2	2015. 2
취업자 전체	436	64	127	42	146	81
관리자	-51	-61	-7	-48	-20	-35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06	175	157	97	236	110
사무종사자	108	118	93	59	164	42
서비스종사자	77	29	122	48	94	83
판매종사자	114	23	75	45	88	25
농림어업숙련종사자	6	1	-64	10	27	-105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29	-58	26	-107	45	5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9	135	63	161	80	58
단순노무종사자	-52	23	67	-65	121	14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 2015년 2월 임금근로자의 신규채용 규모는 2,46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4개월 연속 증가)
 - 임금근로자의 신규채용 규모는 국제금융위기 이후 2009~2010년 동안 증가했다가 감소세가 지속(최근 4개월 연속 증가세)
 - 상용직과 일용직, 산업별로는 음식·숙박업(50천 명 ↑(임시직 26천 명 ↑, 일용직 17천 명 ↑, 상용직 7천 명 ↑, 남성 32천 명 ↑))에서 신규채용 규모 전년동월대비 증가
 - 한편 2015년 2월 현재 임금근로자의 신규채용 규모는 전년동월대비 20천 명 증가(중소규모 사업체 13천 명 ↑). 그러나 20대 연령층, 특히 20~24세 연령층의 신규채용은 활발하지 않음
 - 대규모 사업체에서 신규채용 규모는 전년동월대비 7천 명 ↑(1년 만에 증가로 전환)

〈표 17〉 임금근로자의 신규채용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2014	2013. 2	2014. 2	2015. 2
임금근로자전체		315	483	548	267	803	465
(신규채용)		-108	-37	-1	-268	230	20
지위별	상용직	-5	0	-6	-79	52	13
	임시직	-56	-48	16	-89	70	-10
	일용직	-47	11	-11	-100	108	17
연령별	20대	-40	5	0	-103	93	-30
	55~59세	14	15	0	-18	66	-7
산업별	제조업	-20	-10	-36	-45	3	3
	서비스업	-62	-39	28	-172	137	41
	도소매업	-20	-14	11	-55	36	3
	음식·숙박업	-3	11	17	-10	35	50
	공공행정 등	-10	-7	1	-2	13	-19
	보건업 등	-4	-2	14	-16	18	-12
	건설업	-12	21	11	-38	91	-33
규모별	중소규모	-90	-43	8	-247	209	13
	대규모	-18	5	-10	-21	21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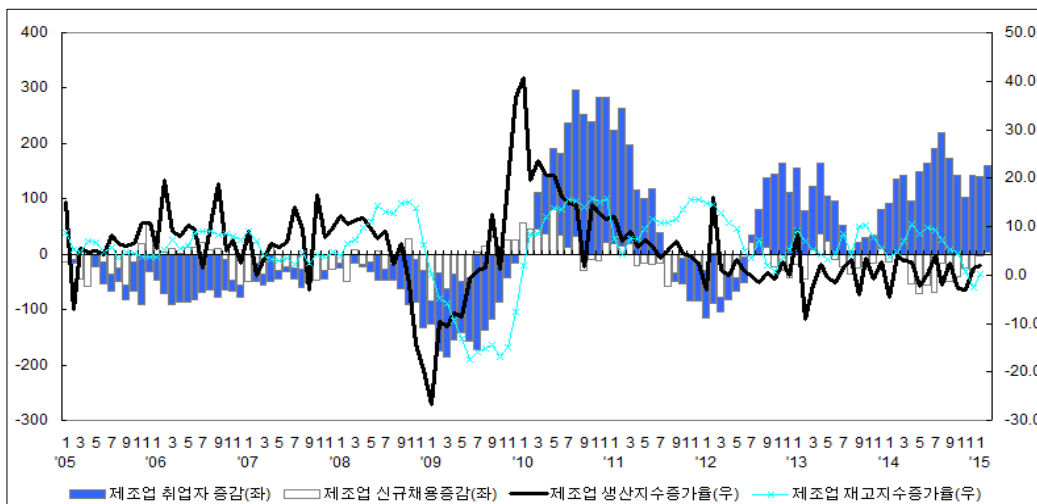
주 : 신규채용은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말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1) 제조업 부문 : 생산·내수·수출 증가, 고용 증가세 지속

- ◎ 제조업 부문의 생산증가율은 2015년 1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1.7% 증가하였으며, 내수, 수출 모두 각각 1.9%, 3.5% 증가(전월대비 모두 감소)
- 제조업 고용은 2015년 1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141천 명 증가(2015년 2월 현재 159천 명 ↑). 2014년 8월 219천 명 증가한 이후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증가세는 지속
- 제조업 취업자 증가율은 2014년 3.5%로 2013년에 비해 1.6%p 상승
-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2012년부터 낮은 수준에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제조업 고용은 증가세 지속

[그림 23] 제조업 고용규모 추이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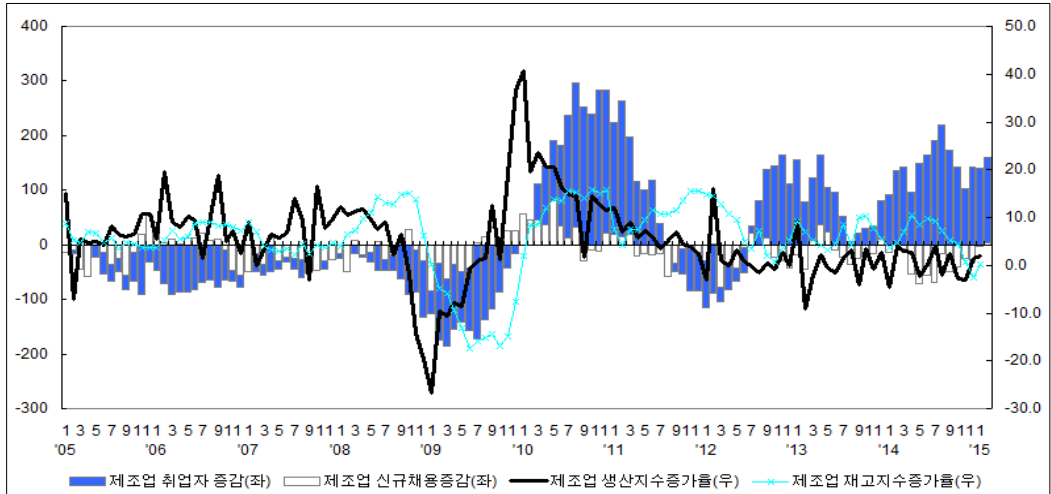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 제조업 고용은 2012년 7월부터 증가 추세이며, 2014년 가파른 증가세
 - 최근 임시직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임시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고용은 감소
 - 남성 제조업 취업자는 137천 명 증가하여 서비스업 남성취업자 고용 둔화와 대비

[그림 24] 제조업 취업자 증감 및 생산증가율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 18〉 제조업 취업자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2014	2013. 2	2014. 2	2015. 2
제조업 취업자 전체		14	79	146	79	135	159
(신규채용)		-20	-10	-36	-45	3	3
지위별	상용직	84	152	209	136	205	191
	임시직	-18	-14	-35	-1	-43	-32
	일용직	-26	-19	-16	-19	-2	8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7	-16	-6	-17	-15	8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6	-12	2	1	-7	-11
	무급가족종사자	-12	-12	-9	-22	-3	-5
성별	남성	19	92	109	105	97	137
	여성	-5	-12	37	-26	38	23
연령별	20세 미만	1	2	4	4	12	-7
	20~24세	13	18	12	12	6	11
	25~29세	-38	-45	16	-64	6	24
	30대	-23	74	13	66	40	40
	40대	-3	-43	13	-19	-21	27
	50~54세	24	26	17	32	18	12
	55~59세	25	34	76	28	87	13
	60세 이상	16	12	-5	20	-12	39
규모별	중소규모	-41	39	79	14	80	87
	대규모	55	41	67	65	54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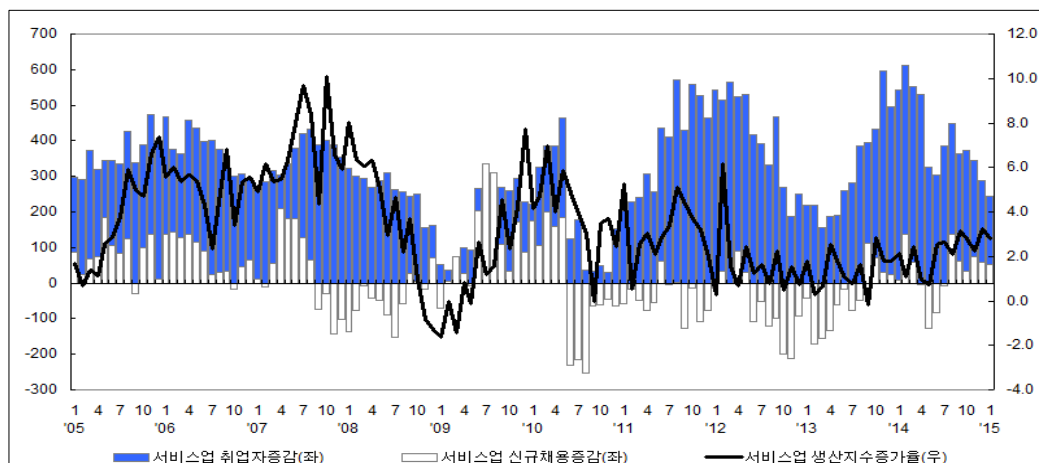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2) 서비스업 부문 : 생산과 고용 증가

- ◎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은 2015년 1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2.4% 증가(전월대비 0.4% 감소)
 - 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은 2014년 이후 소폭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율은 1.3%(2015년 2월)로 저조한 실적
 - 서비스업 고용은 2015년 2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231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쳐 증가폭이 크게 둔화(2014년 1월 현재 545천 명 ↑)
 - 서비스업 취업자는 2013년 3월 저점(155천 명 ↑)에 도달한 이후 고용 증가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14년 8월 이후 증가폭 둔화세 지속
 - 특히 상용직의 고용 증가폭 둔화가 현저한 가운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감소도 지속. 40대 연령층의 고용 감소 또한 확인
 - 10만 명이 넘었던 서비스업 임시직의 고용 증가폭은 2015년 2월 78천 명 증가에 그침
 -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 둔화는 남성의 고용 증가폭 둔화에 기인. 주로 40대 연령층,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남성의 고용이 크게 둔화하거나 감소

[그림 25] 서비스업 취업자증감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 19〉 서비스업 특징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2014	2013. 2	2014. 2	2015. 2	
서비스업 취업자 전체 (신규채용)	416	318	424	222	612	231	
지위별	상용직	345	419	236	364	434	166
	임시직	36	-65	156	-96	123	78
	일용직	-65	-9	-15	-26	-2	6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52	-12	41	-13	7	2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53	-4	-16	24	18	-37
	무급가족종사자	-6	-11	20	-31	32	-3
성별	남성	175	93	170	-15	306	5
	여성	241	225	254	236	306	226
연령별	20세 미만	0	-10	19	11	9	-4
	20~24세	75	8	74	-16	121	50
	25~29세	-97	-16	-45	-67	-18	-34
	30대	26	-76	-7	-53	-1	-27
	40대	36	95	43	67	135	-48
	50~54세	75	75	43	84	61	31
	55~59	137	109	88	76	126	87
60세 이상	164	132	209	120	179	175	
규모별	중소규모	417	256	361	196	539	190
	대규모	-1	62	62	25	73	4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 20〉 서비스업 남성 취업자 특징별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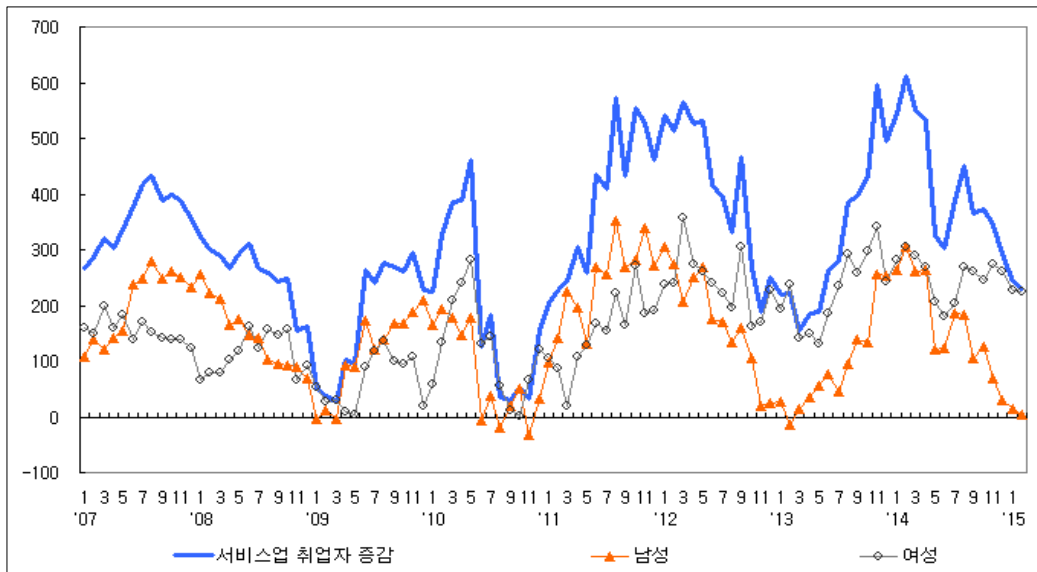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2014	2013. 2	2014. 2	2015. 2	
서비스업 남성 취업자 전체	175	93	170	-15	306	5	
산업별	도소매업	18	-46	75	-93	100	3
	운수업	38	31	-7	16	33	-11
	음식·숙박업	28	35	87	14	97	34
	금융·보험업	-18	17	-13	-1	6	-25
	공공행정 등	-2	-8	-10	-24	14	-35
	기타 개인서비스업	2	12	-53	34	-38	-69
규모별	중소규모	155	57	134	-49	268	8
	대규모	-10	0	-2	-1	6	-12
지위별	상용직	126	159	54	110	142	36
	임시직	12	-48	93	-89	88	16
	일용직	-28	10	3	-23	37	3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37	-22	34	-25	13	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38	-5	-12	13	20	-41
	무급가족종사자	-10	0	-2	-1	6	-12
연령별	30세 미만	-8	6	20	-68	55	28
	30대	-2	-95	-1	-100	-1	-31
	40대	35	57	-1	45	60	-77
	50세 이상	150	124	151	107	192	8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26] 서비스업 성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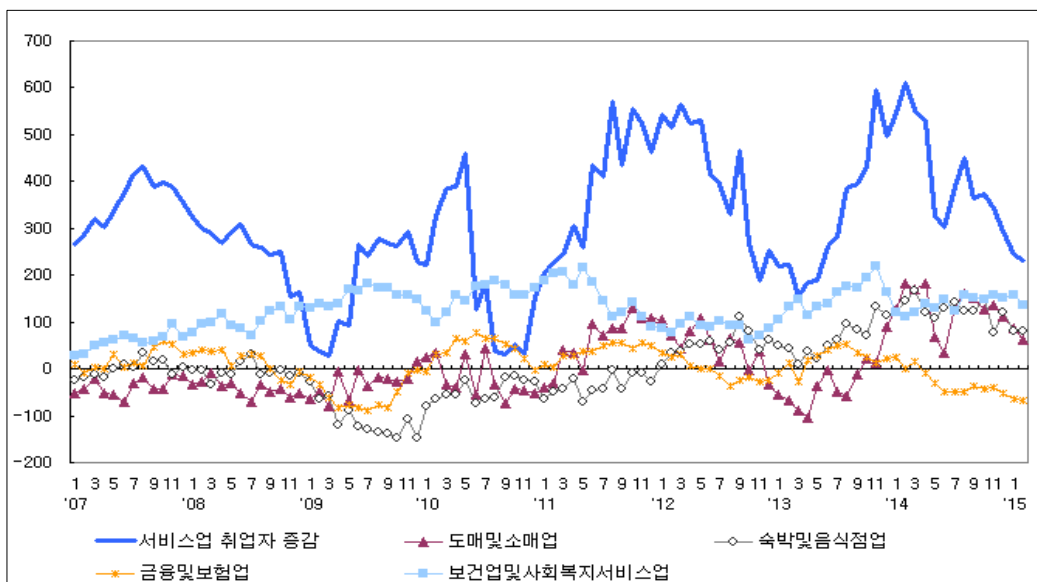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27] 서비스업 부문 주요 업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5천 명 ↑)이 장기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도소매업(62천 명 ↑)과 음식·숙박업(81천 명 ↑)은 고용 증가폭이 둔화하고 금융보험업(68천 명 ↓)은 구조조정으로 고용 감소

- ◎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취업자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증가폭 둔화
 - 도소매업의 취업자 증감은 서비스업 전체 취업자 증감 흐름과 흡사
 - 2015년 2월 현재 도소매업의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62천 명 증가하는 데 그침. 이는 2014년 10만 명이 넘던 고용 증가폭에 비해 둔화(기저효과 반영)
 - 2014년 도소매업 취업자는 전년대비 132천 명 증가하면서 2014년 고용 증가세를 견인. 2014년 도소매업 취업자가 증가할 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감소했으나 2015년 2월 현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5천 명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증가
 - 도소매업 특성상 자영업 비중이 높으나 최근 하락세인 반면, 상용직 비중은 2004년에 비해 15.0%p 증가한 31.5%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
 - 음식·숙박업의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81천 명 증가에 그쳐 증가폭 둔화(기저효과 반영). 그러나 음식·숙박업의 신규채용은 2014년 하반기부터 증가세 지속(2015년 2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50천 명 증가)
 - 2014년 음식·숙박업 임시직 취업자는 79천 명 증가하면서 임시직 비중이 35.5%로 증가 추세

〈표 21〉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특징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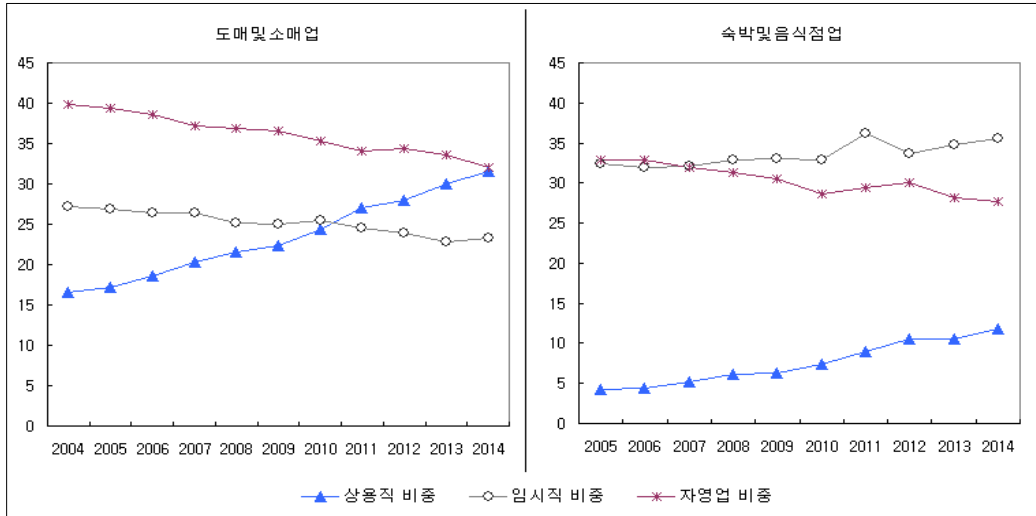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2014	2013. 2	2014. 2	2015. 2
도소매업 취업자 전체		51	-29	132	-69	182	62
(신규채용)		-20	-14	11	-55	36	3
지위별	상용직	51	68	94	14	145	33
	임시직	-10	-45	47	-45	38	3
	일용직	-14	-13	-5	4	-9	12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5	-20	0	-26	1	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23	-15	-17	1	-20	5
연령별	15~19세	3	-4	6	-4	15	-17
	30대	3	-72	57	-90	70	-4
	40대	2	43	3	50	29	-28
규모별	중소규모	58	-29	116	-65	151	63
	대규모	-7	0	16	-3	30	-1
음식·숙박업 취업자 전체		53	64	127	42	146	81
(신규채용)		-3	11	17	-10	35	50
지위별	상용직	5	33	25	28	41	44
	임시직	39	36	79	22	97	48
	일용직	-28	13	-15	12	-13	15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25	-15	22	-8	-1	14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2	-5	4	-15	10	-33
연령별	20~24세	40	21	34	-2	70	24
	55~59세	22	25	23	26	37	5
규모별	중소규모	54	62	125	43	135	82
	대규모	-2	2	2	-1	11	-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28]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금융·보험업은 2014년에 시작된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취업자 감소

- 금융·보험업 취업자는 2014년 4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5년 2월 현재 전년 동월대비 68천 명 감소. 신규채용 또한 9천 명 감소
- 2014년 2월 상용직이 6천 명 감소하면서 상용직 감소폭 확대 추세(2015년 2월 41천 명↓)
- 연령별로는 55~59세 연령층을 제외하고 대부분 연령층에서 감소. 직종별로는 판매직에서 고용 감소가 큼(19천 명↓)

〈표 22〉 금융·보험업 특징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2014	2013. 2	2014. 2	2015. 2
금융·보험업 취업자 전체		-4	22	-26	13	1	-68
(신규채용)		1	-8	-2	-12	0	-9
지위별	상용직	-4	25	-26	18	-6	-41
	임시직	2	-2	-2	2	4	-25
성별	남성	-18	17	-13	-1	6	-25
	여성	14	5	-13	14	-5	-43
연령별	20대	-12	-15	-8	-30	-2	-14
	(20~24세)	-1	1	5	1	5	-4
	30세 이상	7	35	-19	40	3	-54
	(55~59세)	-5	5	4	5	5	7
규모별	중소규모	9	21	-28	21	-9	-57
	대규모	-13	1	2	-8	10	-11
직종별	사무직종사자	5	24	-30	28	-14	-30
	판매직	-2	13	15	6	23	-1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등 부문 고용 감소세 지속

- 공공행정 등 취업자는 2014년 6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5년 2월 현재 전년 동월대비 71천 명 감소. 신규채용 규모 또한 전년동월대비 감소(19천 명 ↓)
- 특히 상용직의 감소폭이 2014년 10월부터 급격히 확대. 30~40대 노동시장 핵심 연령층에서 고용 감소폭 확대(37천 명 ↓). 그뿐만 아니라 20대, 50대 연령층에서도 고용 감소

〈표 23〉 공공행정 등의 특징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2014	2013. 2	2014. 2	2015. 2
공공행정 등 취업자 전체		0	14	-8	-8	23	-71
(신규채용)		-10	-7	1	-2	13	-19
지위별	상용직	9	7	1	-18	25	-50
	임시직	-3	7	-10	17	-6	-17
연령별	20대	-6	-3	15	6	14	-13
	30~40대	-12	-3	-34	-36	-12	-37
	50대	12	6	2	6	14	-18
직종 대분류별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5	11	-7	-2	20	-37
	사무종사자	-13	-3	-4	-28	13	-30
	단순노무종사자	3	0	-8	2	-9	-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3) 농림어업 부문 : 취업자 감소세 지속

- ◎ 농림어업 취업자는 2015년 2월 현재 1,03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7천 명 감소
 -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농림어업 취업자의 감소세는 빠르게 진행. 2014년 2월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
 - 농림어업 특성상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중심으로 감소
 - ※ 농림어업 취업자가 2014년 2월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였는데, 2008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로 바뀌는 제도변경으로 인해 많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되면서, 농림어업 65세 이상 취업자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
 - ※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수급대상자는 시기별로 변화 :
 - 2008년 1월~6월 : 70세 이상 노인의 60%
 - 2008년 7월~12월 : 65세 이상 노인의 60%
 - 2009년 1월~2014년 6월 : 65세 이상 노인의 70%
 -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제도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 도입

- ◎ 2014년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율 -4.5%로 급격하게 하락
 - 농림어업 성장률 또한 전년대비 2.8% 감소. 농림어업의 취업자는 경기순응적 패턴을 보이는 가운데 국제금융위기 전후 경기에 반응하는 시차가 다름(2009년부터 경기동행 패턴을 보임)
 - 농림어업 30~40대 연령층의 취업자 비중 하락세 지속

〈표 24〉 농림어업 특장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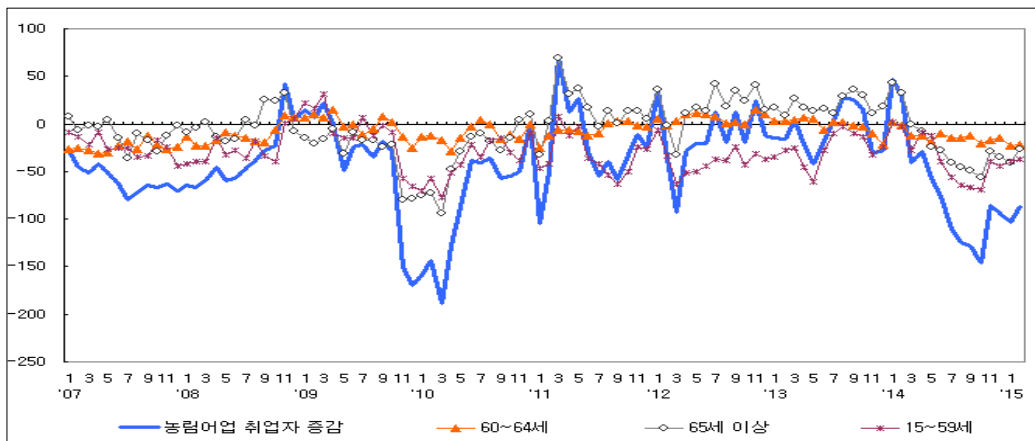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2014	2013. 2	2014. 2	2015. 2
농림어업 취업자 수		1,528	1,520	1,452	1,094	1,123	1,036
(취업자 비중)		6.2	6.1	5.7	4.6	4.5	4.1
취업자 증감	전 체	-14	-8	-68	-15	29	-87
	비임금근로자	6	-2	-61	-2	32	-88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	-5	-29	0	8	-70
	무급가족종사자	12	-2	-28	7	19	-29
	15~59세	-38	-26	-36	-27	-2	-38
	60~64세	6	-1	-12	3	-2	-22
	65세 이상	18	20	-20	9	33	-27
5인 미만	0	-3	-66	-3	15	-8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29] 농림어업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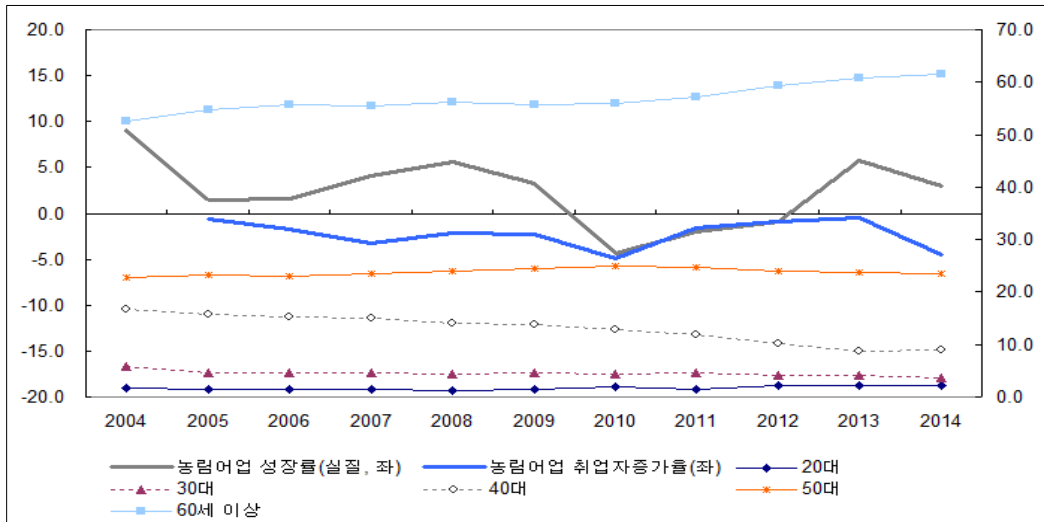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주: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14년 7월부터 지급.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30] 농림어업 성장률(실질), 취업자 증가율, 연령별 취업자 비중 추이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건설업 취업자는 2014년 4월 이후 증가세 지속

- 2015년 2월 현재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68천 명 증가
- 그러나 대규모 사업체의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천 명 감소
- 건설업 취업자는 경기역행적 패턴을 보이며, 자영업의 비중이 소폭 감소하는 가운데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표 25〉 건설업 특징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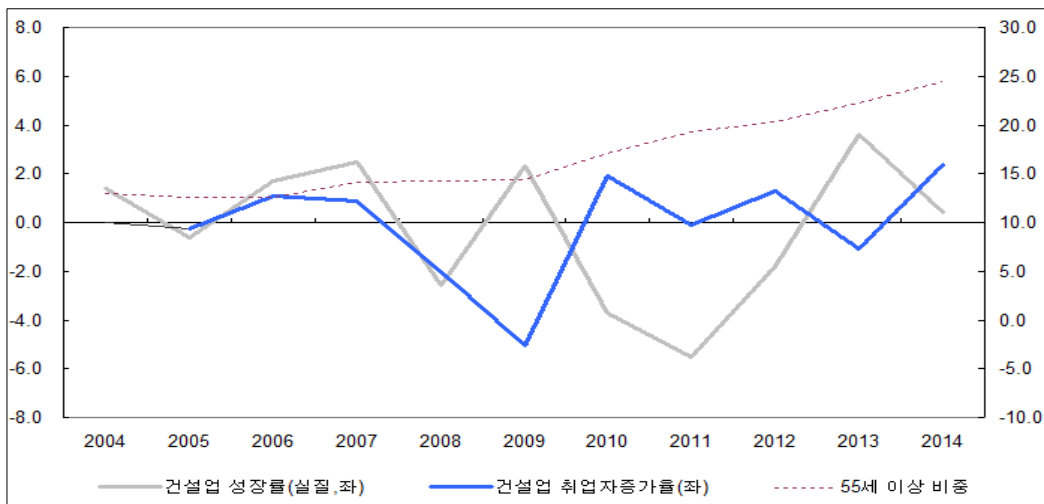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2014	2013. 2	2014. 2	2015. 2
건설업 취업자 전체		22	-19	42	-95	59	68
(신규채용)		-12	21	11	-38	91	-33
지위별	상용직	11	24	4	10	-4	20
	임시직	-18	-16	25	-47	19	21
	일용직	-12	0	0	-52	76	1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5	-15	9	-5	-11	17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33	-8	4	4	-18	3
연령별	40대	0	-6	-8	-17	2	-13
	55세 이상	22	32	47	5	59	68
규모별	중소규모	18	-20	52	-99	65	73
	대규모	4	1	-11	4	-7	-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31] 건설업 성장률(실질), 취업자 증가율, 55세 이상 취업자 비중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6. 지역별 고용 상황

◎ 고용률 등 취업활동은 지역별 편차가 있음

- 광역시도의 2015년 2월 고용률은 제주도(65.9%), 경기도(60.6%), 서울(59.6%) 순으로 높고, 강원도(51.7%), 전라북도(55.5%), 부산(55.8%) 순으로 낮게 나타남
- 거주지 기준 취업자 수는 경기도(6,221천 명), 서울(5,098천 명), 부산(1,651천 명) 순으로 많고, 제주도(318천 명), 울산(544천 명), 강원도(655천 명) 순으로 적게 나타남
- 광역시도의 2015년 2월 실업률은 인천(6.4%), 강원도(6.3%), 부산(5.6%) 순으로 높고, 제주도(2.0%), 전라북도(2.5%), 울산(3.2%) 순으로 낮게 나타남
- ※ 전년 동월과 비교하여 고용률이 높게 상승한 곳은 대전(2.3%), 전라북도(1.6%), 강원도(1.5%)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락한 곳은 경상남도(-1.6%), 울산(-1.2%), 경상북도(-0.9%) 순으로 나타남

〈표 26〉 지역별 고용지표(2015년 2월 기준)

	고용률(%)		취업자 수(천 명)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 체	58.8	0.2	25,195	376	61.6	0.2	4.6	0.1
서울특별시	59.6	-0.6	5,098	-27	62.6	-0.9	4.7	-0.4
부산광역시	55.8	1.1	1,651	35	59.1	2.0	5.6	1.5
대구광역시	58.4	0.9	1,218	23	61.0	0.4	4.2	-0.9
인천광역시	59.1	-0.7	1,438	8	63.1	-0.5	6.4	0.4
광주광역시	57.3	-0.1	724	6	59.6	-0.4	3.7	-0.6
대전광역시	59.5	2.3	771	38	62.3	2.2	4.6	-0.3
울산광역시	57.3	-1.2	544	-6	59.2	-1.5	3.2	-0.3
경기도	60.6	0.9	6,221	196	63.6	1.2	4.7	0.4
강원도	51.7	1.5	655	25	55.1	1.8	6.3	0.6
충청북도	58.5	0.3	775	16	60.7	0.1	3.6	-0.5
충청남도	59.2	0.8	1,115	39	61.7	0.2	4.2	-0.9
전라북도	55.5	1.6	846	31	56.9	0.6	2.5	-1.8
전라남도	59.0	0.5	885	15	61.3	-0.2	3.8	-1.1
경상북도	58.9	-0.9	1,339	-9	62.0	-0.5	5.0	0.6
경상남도	57.9	-1.6	1,599	-19	59.8	-1.0	3.2	1.0
제주도	65.9	-0.4	318	6	67.2	-0.7	2.0	-0.4

자료 : 통계청, KOSIS(경제활동인구조사).

◎ 주요 지역 고용동향

○ 대전광역시

- 2015년 2월 대전광역시 고용률은 59.5%로 전년동월대비 2.3%p 상승
- 산업별로 보면 광공업(13천 명), 건설업(7천 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6천 명)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5천 명) 등에서 증가하였고, 농림어업숙련종사자(-1천 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천 명)에서 감소하였음
- 직업별로 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직(13천 명), 사무종사자(15천 명), 그리고 서비스·판매종사자(2천 명)와 기능·기계조작 및 단순종사자(8천 명) 등에서 증가하였고, 농림어업종사자(-1천 명)에서 감소하였음
-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59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천 명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26천 명, 임시근로자는 4천 명 증가하였음

○ 전라북도

- 2015년 2월 전라북도 고용률은 55.5%로 전년동월대비 1.6%p 상승
-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8천 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2천 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2천 명) 등에서 증가하였고, 광공업(-4천 명), 건설업(-3천 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4천 명) 등에서 감소하였음
- 직업별로 보면 서비스·판매종사자(31천 명), 농림어업숙련종사자(11천 명) 등에서 증가하였고, 전문·기술·행정관리직(-8천 명), 사무종사자(-3천 명) 등에서 감소하였음
-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56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천 명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4천 명, 임시근로자는 5천 명, 일용근로자는 6천 명 증가하였음

〈표 27〉 주요 지역 취업자 수 및 변화 : 대전광역시, 전라북도(2015년 2월 기준)

(단위 : 천 명, %)

		2014. 1	2014. 12	2015. 1	전년동월대비	
					증감 수	증감률
대전광역시	전 체	733	765	771	38	5.2
	농림어업	6	5	5	-1	-13.3
	광공업	70	82	83	13	18.0
	제조업	70	82	83	13	18.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657	679	683	26	3.9
	건설업	56	63	63	7	12.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74	178	172	-2	-1.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43	354	359	16	4.7
	전기·운수·통신·금융업	84	83	89	5	5.6
	전문·기술·행정관리직	188	201	202	13	7.1
	사무직	126	141	141	15	11.6
	서비스·판매직	181	181	182	2	0.9
	농림어업직	6	5	6	-1	-8.2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232	238	240	8	3.6
	비임금근로자	168	174	176	7	4.4
	자영업주	146	147	148	3	1.8
	무급가족종사자	23	26	28	5	21.5
	임금근로자	565	592	595	30	5.3
	상용	370	394	396	26	7.1
	임시	140	142	143	4	2.7
일용	56	55	56	0	0.5	
전라북도	전 체	815	836	846	31	3.8
	농림어업	94	98	102	8	9.0
	광공업	127	122	123	-4	-3.3
	제조업	126	122	123	-4	-2.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595	615	621	27	4.5
	건설업	68	64	65	-3	-4.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47	167	169	22	15.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00	307	312	12	4.1
	전기·운수·통신·금융업	80	77	75	-4	-5.4
	전문·기술·행정관리직	169	163	161	-8	-4.6
	사무직	119	113	116	-3	-2.8
	서비스·판매직	161	191	192	31	19.3
	농림어업직	90	99	101	11	12.0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276	270	276	0	0.0
	비임금근로자	261	277	277	16	6.1
	자영업주	223	237	233	10	4.3
	무급가족종사자	38	40	44	6	16.4
	임금근로자	554	559	569	15	2.7
	상용	353	352	357	4	1.2
	임시	143	141	148	5	3.6
일용	58	66	64	6	10.1	

주 : 증감률은 취업자 증가율임.

자료 : 충청지방통계청(2015. 3), 『2015년 2월 대전·충청지역 고용동향』.

호남지방통계청(2015. 3), 『2015년 2월 전북지역 고용동향』.

○ 경상남도

- 2015년 2월 경상남도 고용률은 57.9%로 전년동월대비 1.6%p 하락
- 산업별로 보면 광공업(9천 명), 건설업(4천 명) 등에서 증가하였고, 농림어업(-15천 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8천 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6천 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2천 명) 등에서 감소하였음
- 직업별로 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직(-20천 명), 사무종사자(-8천 명), 서비스·판매종사자(-7천 명)와 농림어업숙련종사자(-21천 명) 등에서 감소하였고, 기능·기계조작 및 단순종사자(37천 명) 등에서 증가하였음
-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1,13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천 명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34천 명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19천 명, 일용근로자는 4천 명 감소하였음
- 비임금근로자는 46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천 명 감소하였으며, 자영업주(-12천 명)와 무급가족종사자(-17천 명) 모두 감소하였음

○ 울산광역시

- 2015년 2월 울산광역시 고용률은 57.3%로 전년동월대비 1.2%p 하락
- 산업별로 보면 광공업(7천 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천 명) 등에서 증가하였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4천 명)에서 감소하였음
- 직업별로 보면 사무직(2천 명)에서 증가하였고, 전문·기술·행정관리직(-6천 명), 서비스·판매종사자(-1천 명)와 기능·기계조작 및 단순종사자(-1천 명) 등에서 감소하였음
-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44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 명 감소하였으며, 이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11천 명)는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11천 명)와 일용근로자(-3천 명)는 감소하였음

〈표 28〉 주요 지역 취업자 수 및 변화 : 경상남도, 울산광역시(2015년 2월 기준)

(단위 : 천 명, %)

		2014. 1	2014. 12	2015. 1	전년동월대비		
					증감 수	증감률	
경상남도	전 체	1,618	1,592	1,599	-19	-1.2	
	산업별	농림어업	148	130	133	-15	-10.3
		광공업	439	448	448	9	2.1
		제조업	439	448	448	9	2.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031	1,014	1,018	-13	-1.2
		건설업	85	80	89	4	4.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26	318	318	-8	-2.5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466	467	460	-6	-1.3
	직업별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54	149	152	-2	-1.2
		전문·기술·행정관리직	288	278	268	-20	-6.8
		사무직	246	237	238	-8	-3.3
		서비스·판매직	335	329	328	-7	-2.1
		농림어업직	139	117	118	-21	-14.8
	종사상지위별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610	632	647	37	6.0
		비임금근로자	489	451	460	-29	-5.9
		자영업주	393	377	381	-12	-3.0
		무급가족종사자	97	74	79	-17	-17.8
		임금근로자	1,128	1,141	1,138	10	0.9
		상용	807	832	840	34	4.2
		임시	246	235	226	-19	-7.8
일용	76	74	72	-4	-5.8		
울산광역시	전 체	550	539	544	-6	-1.1	
	산업별	농림어업	6	6	6	0	-6.5
		광공업	201	207	208	7	3.3
		제조업	201	207	207	6	3.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342	327	330	-12	-3.6
		건설업	36	39	37	0	0.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02	101	103	2	1.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62	147	148	-14	-8.6
	직업별	전기·운수·통신·금융업	42	40	42	0	-0.5
		전문·기술·행정관리직	98	90	92	-6	-5.6
		사무직	81	81	82	2	2.1
		서비스·판매직	102	96	101	-1	-0.8
		농림어업직	7	6	7	0	0.0
	종사상지위별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262	267	261	-1	-0.5
		비임금근로자	104	100	101	-3	-3.0
		자영업주	89	86	86	-2	-2.5
		무급가족종사자	16	14	15	-1	-5.8
		임금근로자	446	439	443	-3	-0.6
		상용	321	330	333	11	3.5
		임시	99	86	87	-11	-11.5
일용	26	24	23	-3	-10.5		

주 : 증감률은 취업자 증가율임.

자료 : 동남지방통계청(2015. 3), 『2015년 2월 부산·울산·경남지역 고용동향』.